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이기에
교육가족의 미래가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 내 꿈의 무대
# ON THE STAGE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

ccm 소비자중심 공정거래위원회

2023 06
vol.70

# The·K
MONTHLY MAGAZINE

##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특별 인터뷰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고향과 나라를 구한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과 박효칠 교사
배움 더하기 고민 상담소 때론 가시 같은 상처를 입히는 가족과의 갈등 개선하기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청초한 파스텔컬러 수국 만나러 한국의 나폴리로 떠나다 '경남 통영시'
언제나 더케이 The-K 크리에이터 한눈에 모아보는 The-K 크리에이터 테마별 인기 콘텐츠 모음집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 The-K

JUNE. 2023 I vol. 70

- **발행일** 2023년 6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04** **여는 글**
나의 일을 사랑하는 마법, '나눔'

##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06** **The-K 예술가**
보람으로 오래토록 이 길을 걷고도 싶다

**08** **역사 속 숨은 영웅**
책 대신 총을 든 학생들과 그 곁에 함께한 선생님
_ 고향과 나라를 구한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과 박효칠 교사

**12** **우리 어렸을 적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40** **고민 상담소**
때론 가시 같은 상처를 입히는
가족과의 갈등 개선하기

**42** **인생 이모작**
내 인생은 이차함수! 그래서 인생 2막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_ 색소폰 연주 재능기부로 행복 전하는 '국민 스승' 전근배 회원

## 2023년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특별 인터뷰

**14**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공적 소개**

**16**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_ 하단중학교 강정미 수석교사

**20** **대한민국 스승상 유아교육 부문**
_ 춘천 봄봄유치원 김명희 원장

**22** **대한민국 스승상 특수교육 부문**
_ 한국선진학교 박용석 교사

**24** **대한민국 스승상 초등교육 부문**
_ 산촌유학교육원 박현성 교사

**26** **대한민국 스승상 초등교육 부문**
_ 광주우산초등학교 박수진 교사

**28** **대한민국 스승상 초등교육 부문**
_ 이매초등학교 송미옥 교사

**30**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교육 부문**
_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배은식 교사

**32**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교육 부문**
_ 안산 관산중학교 신경아 교사

**34** **대한민국 스승상 대학교육 부문**
_ 포항공과대학교 장승기 교수

**36** **대한민국 스승상 대학교육 부문**
_ 순천대학교 강형일 교수

**38** **대한민국 스승상 평생교육 부문**
_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김은경 교사

##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46** **방방곡곡 숨은 명소**
청초한 파스텔컬러 수국 만나러
한국의 나폴리로 떠나다
_ 경남 통영시

**52** **키워드로 읽는 시사**
옛것을 고쳐 새롭게 탄생한 복고 콘텐츠의 매력
뉴트렌드로 떠오른 콘고지신

**54** **건강한 집밥**
맛은 가볍게, 영양은 알차게
색다른 여름 보양식, 애호박 요리

**58** **DIY 리사이클링**
종이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소비
소셜 벤처 '그레이프랩'
& 재활용품으로 사무용품 만들기

##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62** **The-K 매거진 싣고 달려가는 커피트럭**
대전탄방중학교 & 충남고등학교 & 대전문정초등학교
/ 전북대학교병원

**68** **The-K 크리에이터**
교육 가족과 소통하는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눈에 모아보는 The-K 크리에이터 테마별 인기 콘텐츠 모음집

**72** **The-K Family**
한국교직원공제회 비갱신형 DIY종합건강보험 신규 출시!

**73**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78** **회원 의견**

**82** **「The-K 매거진」 온라인 웹진 이벤트**

**83** **The-K OX 퀴즈 & 즉석 당첨 이벤트**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최용호, 김경희, 오수민, 박연희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 나의 일을 사랑하는 마법, '나눔'

사람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일치하더라도 직업이 될 경우, 오히려 그 일을 싫어하게 될까 걱정하기도 하죠.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타인의 삶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큰 보람과 함께 자존감을 높여주고
결국 그 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3년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의 주인공들은 교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에 창의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교육자로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점인데요.
일에 대한 사랑은 다시 더 큰 기여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호에는 교육자이자 리더로서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11명의 참스승으로서 열정과 진정성 있는 교육 활동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역사 속 숨은 영웅'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에 참전한 태백중학교 박효칠 교사와 126인
학도병 영웅들의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전하며, 정년퇴직 후 색소폰 연주 재능 기부로 노인들을 위로하는
행복전도사 전근배 회원의 훈훈한 사연은 '인생 이모작'에서 공개합니다.
'DIY 리사이클링'에서는 재생지나 비목재지, 사탕수수 등 친환경 재료로 디자인 감성이 가득한 노트북 스탠드,
쇼핑백, 수첩 등을 만드는 친환경 사회적기업 '그레이프랩'을 소개하고 재활용 종이로 사무용품을 만드는 법도 제안합니다.

이번 호 커피트럭은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북대학교병원
'제1회 JBUH 나이팅게일 행사'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 축제 한마당을 함께했으며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탄방중학교와 충남고, 대전문정초교 교직원에게
커피 한 잔과 카네이션을 건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교육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2기 The-K 크리에이터 회원님들의 인기 콘텐츠들도 테마별로 모아 소개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일을 찾고 그 일과 사랑에 빠지는 행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The-K 예술가」는 그림·조각·서예·시 등 회원님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지상 갤러리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재능과 꿈을 지면에 담아 더 많은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보람으로 오래토록 이 길을 걷고도 싶다

**어울림** | 김순옥 회원(前 토현중학교)

watercolor on paper, 53×73cm, 2017

작가 노트 :
험한 바위 틈 거친 환경에서도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 단정한 푸념

박
순
숙

참 많이 왔구나
일반학교에
자리 잡은 통합교육 아찔했구나
돌아보니 기적이었구나
무모한 용기로 걸어왔구나
흐르는 물처럼 사는 건 참 어려운 것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었고
간질을 하는 아이를 허벅지에 눕히고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물줄기로 흘렀다
그러다
때때로 푸른 하늘 흰 구름 바라보듯
천진난만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람으로 오래토록 이 길을 걷고도 싶다

참 아름다운
길

**WRITER**

**박순숙 시인**은 1987년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을 지도하기 시작하여 약 30년간 교직 생활 후 퇴직했다. 공무원 문예대전 우수상 수상, 중랑신춘문예 장원 수상,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했고, 동서커피 문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0년 동안 가르쳐온 특수학교 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 『눈꺼풀로 하는 대화』(전자책 출간)와 『산굼부리에서 사랑을 읽다-특수학교 교사의 일기』를 발간했다.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역사 속 숨은 영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남긴 교육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코너입니다.

# 책 대신 총을 든 학생들과 그 곁에 함께한 선생님
# 고향과 나라를 구한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과 박효칠 교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1951년 1월 9일 태백중학교 교정에 모인 학생들은 이렇게 외쳤다. 1·4 후퇴 이후 5일 만인 그날, 6·25 참전을 다짐하던 순간이었다. 4일을 꼬박 걸어 찾아간 군대에서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몇몇이 입대를 거절당했다. 그들은 "38선만 돌파하면 학교로 가겠다"고 사정하며 버텼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찾은 이들은 고작 14~16살의 어린 소년들이었다. '내 나라와 내 고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친 이들의 호국정신은 부모의 간절한 만류도, 살을 에는 겨울바람도 막지 못했다. 흘러내리는 철모와 몸에 맞지 않는 군복을 입은 10대 소년들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 전쟁터를 누볐고 18명의 전우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수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속에는 "학생들이 가는 곳에 선생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들의 곁을 지킨 박효칠 교사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다. 호국의 달 6월, 눈꽃처럼 순수하고 강철처럼 단단했던 학생들과 교사의 애국심, 그 숭고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글 이경훈 화홍고등학교 역사교사

이경훈 역사 교사는 화홍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일 간 역사 갈등과 화해를 연구하면서 「쟁점 한일사」 「마주 보는 한일사」 (공저) 등을 출간했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지원교사,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 원회 위원 등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6.25전쟁의 시작, 전쟁터로 나선 학생들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 걸친 북한군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한국군은 전쟁 초반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다.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상륙작전으로 겨우 전세를 역전시켜 북한군을 북으로 밀어 올렸지만 10월 19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참전은 전쟁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혼란 상태로 빠뜨렸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밀리기 시작했고, 중공군은 12월 26일 38선을 넘어 남하했다. 마치 한반도를 남북으로 톱질하듯 밀고 밀리는 전황의 연속이었다.

학도의용군 신분증

'학도의용군'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참전했다. 6월 28일 서울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이후 가까스로 한강을 건너 수원에 모인 학생 200여 명은 다음 날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비상학도대'를 조직했다. 7월 1일 대전에서는 학생 700여 명이 '의용학도대'를 조직해 상당수가 군에 입대했다. 비상학도대와 의용학도대를 중심으로 대구에 모인 약 5,000명의 학생은 애국학도총궐기대회를 열고 '대한학도의용대'로 확대·개편해 참전했다. 이들은 학도병 모집, 피란 학생 규합, 선전대원 파견 등 군 업무에 적극 참여했고 안동전투, 다부동전투 등 전선에 투입되어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학생으로 구성된 학도의용군뿐 아니라 여학생 학도의용군, 재일 학도의용군도 참전했다. 그렇다면 학도의용군이란 정확히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학도의용군은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 신분으로 지원해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 소탕, 치안 유지, 간호 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경의 업무를 도운 개별 학생 혹은 단체를 말한다.

학도의용군의 활동 기간을 '1951년 4월까지'로 정한 이유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고 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앞날을 짊어질 청년학도들은 시급히 학원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라'는 '복교령'을 내렸고, 대다수 학도의용군이 귀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많은 학도의용군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현역 군인으로 신분을 전환해 복무하기도 했다.

어린 중학생부터 장성한 대학생까지 학도의용군의 이름으로 실전에 참여한 학도들은 6·25 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모두 약 2만 7천여 명에 이르렀고, 후방지역 또는 수복지역에서 선무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려 20만 명이나 되었다.

## 127명, 태백중학교 학도병들의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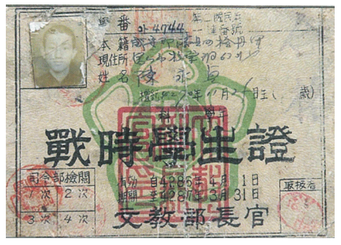
"인민군은 15세부터 의용군이라는 명칭으로 전쟁터로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던 젊은 친구들이 인민군 청년위원회에 가입해 하루속히 나와서 함께 일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다녀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밤늦게까지 들판이나 산에 숨어 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에는 겨울철이라 숨어 견딜 수도 없었고, 또 남아 있자니 6·25전쟁 발발 당시와 같이 갖은 고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인민군에 부역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황두영 씨의 증언)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경북 포항) [출처: 경북일보 2019.6.6.]

1951년 1월 9일 새벽, 태백중학교 학생 123명이 교정에 모였다. 당시 학생들은 북한군 치하에서 강제징집을 피하기 위해 숨어 지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간신히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다는 소식이

들리자 불안한 마음에 1월 8일 오후 학교에 모인 20여 명의 학생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태백지구에 또다시 북한군이나 중공군이 들어온다면 숨어 살거나 의용군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학생 중 일부가 포항 지역 학도의용군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우리도 후방으로 내려가서 학도병에 지원하자"라고 제안했고, 많은 학생이 "우리 고향은 우리 손으로 지키자"라면서 동의했다. 하룻밤 사이에 학도병 지원 소식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퍼져 9일 새벽, 123명의 학생이 모였던 것이다. 이들은 울산에 육군본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기로 하고 출발했다. 이때 태백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박효칠 교사는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도 있어야 한다"며 함께 참여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휴교령으로 고향에 내려와 있던 학생 3명도 합류해 총 127명이 영하의 기온과 강풍을 뚫고 울산으로 출발했다.

태백중학교 교정에 있는 박효칠 교사 흉상




6·25전쟁 당시 발급한 전시 학생증 [출처: 「6.25 전쟁 학도의용군 자료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호국의 마음으로 책과 펜 대신 총을 들고 나서다

울산으로 향한 박효칠 교사와 학생들은 3일 밤낮을 걸어 경북 봉화군 춘양까지 갔으나, 이곳에서 제3사단 23연대의 저지를 받았다. 부대에서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했다. 학생 대표는 연대장을 찾아가 정식으로 입대를 요청했지만 학생을 군인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 거절당했다. 이들은 다시 나이와 키를 속여가며 간곡히 입대를 요청했고, 학생들의 의지에 감동한 연대장은 입대를 허락했다. 1월 14일 학생들은 입대식을 거쳐 학도중대로 편성되었고, 인솔을 맡은 박효칠 교사는 행정보급관으로 입대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당시 전선이 위급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초적인 군사훈련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곧바로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전투 참가 명령을 받았다.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의 첫 참전이었다. 녹전리에서는 한국군 3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에 맞서 1월 14일부터 5일간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학도의용군의 임무는 전투 후 낙오된 북한군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학도의용군은 제3사단이 제3군단에 편입되어 중동부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함께 이동했고, 5월 인제 현리 전투에 참전했다. 현리 전투는 6·25전쟁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군 3군단이 중공군 9병단의 포위 공격을 받아 군단이 와해되고 부대 편제를 유지하지도 못한 채 병력의 3분의 1 정도만 간신히 탈출한 전투다. 하지만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은 이 전투에서 중공군을 2시간 동안 막아내면서 한국군 4개 사단 병력이 적의 포위망을 뚫고 후퇴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투 이후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무사히 후방 집결지에 모였다는 것이다.

태백중학교 학도병전적비 (제3사단 사령부)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리전투전적비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출처: 강원종합뉴스]

## 정규군 특공대로 활약한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1951년 2월 종군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교령이 떨어졌다. 전국에 산재해 있던 학도의용군은 그에 따라 3월 초 해산하고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은 치열한 전투 속에 5월이 지나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 부대에서는 학도의용군의 현리 전투 전공을 알고 있었고, 접경 지역에서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입대를 권유했다. 학생들은 고심 끝에 1951년 6월 1일 정식으로 군번을 받고 정규군으로 입대했다. 전시 중이라 양철 인식표도 없이 나무 표찰에 이름과 군번을 새긴 인식표를 받고 정식 현역병이 된 것이다.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은 현리 전투의 전공과 병력 손실 없이 부대를 유지한 점을 인정받아 6월 15일 제3사단 23연대 특공대로 편제되었다. 이후 이들은 간성 쑥고개 전투, 김화 949고지 탈환 전투, 양구 가칠봉 전투, 간성지구 전투 등에 참전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직전 특공대는 해산되었다. 이후 특공대에 소속된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들은 주로 각 부대 행정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 임무를 맡아 수행했다. 당시 현역병 중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문맹퇴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영어와 수학 기초반을 만들어 가르치기도 하고, 모교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도서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국방부 정훈국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소개되었다.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은 1957년까지 제대해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서 활동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 18명은 군복무 중 전사해 유명을 달리했다.

## 태백의 화랑으로 기억되는 학도의용군

"한 학교 출신이 한 부대에서 1개 중대가 되어 전투에 참전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모교에 태백 출신 전몰 학도병 충혼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952년 9월 모교에서 후배들이 선배 장병을 위문하기 위해 부대를 방문했을 때 부대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했다. 후배들과 인솔 교사, 자리에 있던 부대원들 모두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이에 학도의용군은 월급을 학교에 보내 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때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친목회를 만들기로 하고 삼국시대 국난 극복과 국위선양에 앞장섰던 화랑도와 고향 태백에서 한 글자씩 따와 '화백회'로 이름을 정했다.

휴전 이후 화백회는 전사한 18명 학도의용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1954년 11월 모교에 충혼비를 건립했고,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1997년 태백중학교에서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해 이들의 공적을 기렸다. 또한 2005년에는 제3사단 교육장에 '태백중학교 학도병전적비'를 건립했고, 2009년에는 태백중학교 교정에 기념관을 건립했다. 2016년에는 매년 개최되는 추모제에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해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127명을 포함한 태백중학교 출신 참전용사 169명의 이름과 군번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에 증정하기도 했다.

"748, 949, 973, 662, 529…. 우리가 싸웠던 고지 번호입니다. 동창이자 전우들이 피 흘린 곳으로 평생 잊지 못할 숫자들이죠." 추모제를 마친 뒤 화백회 이영도 씨에게 어디서 싸웠는지 묻자 숫자를 열거했다. 함께 참전하다 전사한 동지 중 아직 16명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생존한 학도의용군들이 매년 자신들이 싸웠던 곳에 올라 전우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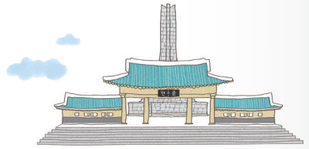
화백회 회장을 역임한 이용연 씨는 "학업에 매진해야 할 나이에 입대해 8년 가까이 군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니 이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상태에서 그나마 살길은 광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광부 생활을 하다 보니 진폐증으로 평생 인간다운 삶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했다.

전쟁은 당시의 치열한 전투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빛나는 전승을 기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분들을 기념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쟁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나간 전쟁을 기억하는 일도 필요하다.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과 박효칠 교사의 헌신과 활동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고 즐겁게 학생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

태백중학교 학도의용군 김봉진 씨에게 명패를 전달하는 육군참모총장 [출처: 국방일보 2019.6.4.]

교사 출신 김완기 사진작가가 소장한 1960~1970년대 전후 추억의 사진을 만나보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를 통해 향수 어린 그 시절로 세대공감 여행을 떠나 보아요.

# 호국보훈의 달 행사



해마다 6월이 되면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열린다. 현충일 기념식을 하고, 국립묘지(지금의 국립현충원)를 찾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묘소를 참배했다. 장병의 묘소 앞에 헌화한 다음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어린이는 자기 가족의 묘소를 찾아 명복을 비는 기도를 정성껏 드리기도 했다. 한편으로 국토를 지켜주고 있는 자매 부대를 찾아가 장병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매의 정을 돈독히 하기도 했다. 장병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고, 장병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평소 자매 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아이들이 집에서 정성껏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누어 주어 장병들이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 뿌듯해하기도 했다. 어떤 학교에서는 장병이 휴식을 취하는 막사에 TV를 설치해 주었더니 부대 인근 산에서 베어 온 싸리로 만든 빗자루를 학교에 보내주어 여러 해 동안 청소를 하는 데 유용하게 쓰기도 했다. 이렇게 뜻 있는 위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 하루하루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불철주야 애쓰는 국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다. 그 밖에도 반공 웅변대회, 포스터 그리기, 표어 만들기, 리본 달기 등 6월 한 달 동안 각종 호국보훈 행사가 열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물론 국군 장병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국립현충원 전몰장병 묘소 참배** (1971)
현충일을 전후하여 아이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의 묘소에 참배하고 헌화하고 있다.

**헌화 꽃병에 물주기** (1971)
아이들이 헌화한 꽃이 시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꽃에 물을 주고 있다.

**가족 묘소 찾아 기도 드리기** (1971)
한 아이가 6·25전쟁 때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가족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명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다.

**자매 부대 위문품 전달** (1976)
자매 부대를 찾아가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어린이 대표, 탱크에 올라타 보기** (1976)
국군 장병들이 어떤 장비로 적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지 어린이 대표가 직접 탱크에 올라타 보고 있다.

###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 교사의 길을 걸어온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열한 분을 소개합니다. 교실,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가리지 않고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스승들의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감동은 우리에게 이러한 '참스승'이 필요하다는 절실함과 그들의 노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이들이 실천한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지역, 사회를 아우르며 모두에게 스승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육자로서 리더로서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맡은바 소명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헌신한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정리 편집실

★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하기 위한 상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해 매년 유아·특수·초등·중등·대학·평생교육 부문에서 총 11명을 선발합니다.

## 환경교육 실천, 자기주도학습 교수법으로 열린 교육 문화 선도

**대상 강정미**(하단중학교)

환경교육 교사로 활동하며 환경 교과서 「부산의 환경과 미래」 집필 등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며 다양성을 갖춘 교육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에 힘썼다. 2012년부터는 영재교육원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리더십 특강 강사로 나서며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자료 개발과 맞춤 교육으로 과학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 마을공동체와 함께 협력해 아이를 키우는 환경 조성에 앞장

**유아 김명희**(춘천 봄봄유치원)

유치원과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말농장, 마을장터 등을 운영하며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교육공동체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온 마을 유아 즐거운 놀이 체험터' 등을 열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학부모, 지역사회와 소통했다. 이 외에도 '리딩으로 리드하는 유아교육 자율 동아리'를 운영해 교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해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 '사제동행 봉사'와 '북 콘서트'로 학생의 인성·재능 향상 지도

**초등 박현성**(산촌유학교육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제자들과 함께 사제동행 재능 기부 봉사 활동을 오랜 기간 실천해 왔다. 또 봉사 활동과 교직 생활의 경험을 담은 저서 「행복이 가득한 미덕 교실 이야기」를 발간 후 이를 선물하는 북 콘서트를 무료로 열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열린 교육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 역량 있는 장애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 특수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

**특수 박용석**(한국선진학교)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육상과 탁구 등 스포츠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흥미를 키웠을 뿐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장애 학생 스포츠 선수를 발굴해 지도하고, 그 결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 수상이라는 큰 성과도 거뒀다. 더불어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의 공저자로 참여해 '장애 학생 특성화 체육 지도 학술 연구'를 주제로 교수법 개선 효과를 거두는 등 한국 특수체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창의력을 키워주는 에듀테크 교육 실천

**초등 박수진**(광주우산초등학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AI 융합 수업 등의 미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 팀 협력과 질문 생성 활동, 창의성 기법 적용 등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시하고 블렌디드 교육의 실천 사례를 동료 교사 등과 공유하면서 학교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 학교폭력예방 전문가로 인성교육 발전에 기여

**초등 송미옥**(이매초등학교)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인성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재인 「별별 프로그램」 집필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연구단'으로 활동하며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교 안전 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실천

**중등 신경아**(안산 관산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인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이들의 융합을 위한 미술 수업 자료와 동영상 클립 등을 제작했다. 덕분에 언어 소통이 어려운 학생들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큰 공로를 세웠다. 교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예술공감터'와 아이들이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교내 미술관을 운영해 학교 공간에도 혁신을 이뤘다. 현재 유튜브 채널 '국경 없는 미술실'을 운영하며 교육 다큐를 공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교수·교직원·학생이 참여하는 혁신 정책단 설립해 대학 혁신을 주도

**대학 강형일**(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명의 소속 교수와 머리를 맞대 학과 융합을 진행하고, 혁신정책단을 구성했다. 그 결과 2019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역량강화대학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승격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환경 분야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했다.

## 학생 꿈 키우기 활동에 기반한 창업과 인재육성에 헌신

**중등 배은식**(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 꿈 키우기' 활동을 비롯해 협동 토론 교육으로 아이들의 진로에 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창업가 인재 육성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 '고등학교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등 여러 대회의 출전 지도를 맡아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 획득을 이끌었다. 개인 활동으로 '고양이 놀이 운동기구' 등 다수의 연구·발명 활동을 통해 특허등록과 대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 C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과 대학-지역 상생 방안 마련

**대학 장승기**(포항공과대학교)

C형 간염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규명해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고, 관련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또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센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을 건립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중요 플랫폼을 기획·개발·구축해 많은 관련 연구자, 산업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이러스와 바이오산업에 관한 강연을 꾸준히 해오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 만학도를 위한 생활 속 맞춤 교육 활동 연구·실천

**평생 김은경**(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을 열망하는 만학도들의 교육열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시 낭송, 팝송 익히기, 기초수학 반복 학습, 길거리 생활 영어 배우기, 영어 말하기 개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꾸준히 연구·실천했다. 특히 30대부터 9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학생들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학업, 건강, 고민 등 개별 맞춤형 상담으로 학생과 교사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 교사는 살아 있는 교과서! 교과목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

하단중학교 **강정미 수석교사**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가 곧 자식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하단중학교 강정미 교사는 학교에서만큼은 '교사가 학생의 거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학생들 눈에 책 읽는 교사의 모습,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비치려 한다. 그러한 노력으로 전국 교사들이 바라보는 거울,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한 강정미 교사를 만났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한 강정미 수석교사의 수상소감과 교육철학,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과학 선생님

과학 실습 시간, 학생들 앞에 종이가 놓여 있다. 오늘 할 일은 에세이 쓰기. 학생들은 "에세이가 뭐예요?"라는 질문부터 꺼낸다. 에세이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지 설명하는 사람은 책 읽는 과학 교사, 강정미 교사다.

강정미 교사는 1989년 주례중학교 첫 발령 후 34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어릴 적 소설가를 꿈꿀 만큼 책을 좋아했음에도 뜻하지 않게 과학 교사가 되었지만, '좋은 교사가 되겠다'라는 사명을 실천하는 데 교과목은 중요하지 않았다. 또 과학 시간에도 얼마든지 학생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쓸 수 있었다. 강정미 교사는 "과거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르신도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필요하며, 그 힘은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다. 그래서 강정미 교사는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힘, 문해력(文解力)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융합 교육을 펼치고 있다.

"지식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첫째, 일상에서 지식을 발견하고, 둘째, 발견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수업 시간에 '과학 포토 에세이 쓰기'를 합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 주변을 관찰하고, 흥미로운 것을 카메라에 담고,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써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학생 대부분이 처음에는 글쓰기를 어려워해요. 그럴 때는 '오늘은 다섯 문장만 써보자' 달래기도 하고, 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터득한 지식을 시험으로 평가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유별난 책 사랑은 계속된다. 강정미 교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행복독서교육지원단'으로서 독서 토론 캠프와 한마당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생각한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02년생·2003년생 책가방 독서 자료', '2020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진로 독서 워크북',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과별 독서 활동 매뉴얼 개발 등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강정미 교사는 학교 현장에 책 읽는 분위기와 토의·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하지만 그간의 활동보다 가치 있는 것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늘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과학 교사이지만 책을 놓지 않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 교사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에너지를 주는 사람

강정미 교사의 곁에는 늘 책이 있었다.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평생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실컷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또 어릴 적 강정미 교사의 집에는 책만큼 식구도 많았다. 아버지는 해마다 어린 학생들을 집에 데려와 하숙을 시켜주곤 했기 때문이다. 조금 자라서야 그들이 가정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강정미 교사는 한번 더 식구가 참 많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장례식장에 찾아와 목놓아 우는 아버지의 제자들을 보며 그는 숙연해졌다. "교사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강정미 교사는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놓는다. 이처럼 아버지는 어버이이자 스승으로서 강정미 교사를 참스승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20년 전쯤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곤

아버지가 '교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교재다.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며 혼을 내시더군요. 지금도 그 말씀을 항상 되새기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교과서가, 태도와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학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 특히 손녀가 태어나고부터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졌다. 항상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게 된 것이다. 손녀의 출생은 본래 관심을 두고 있던 '환경' 분야 연구에도 기폭제가 되었다. 강정미 교사는 부산 지역 환경 교과서인 「부산의 환경과 미래」, 「부산의 환경과 미래-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 워크북」을 집필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다수의 교과서 제작에 참여해 본 일은 교사로서도 좋은 양분이 되어주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아요. 몇 번의 수정을 거쳤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치고 또 고쳐야 하죠. 우선 아는 것을 정리하고, 새로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대한 분야 안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춰 덜어낼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내는 책이 아닌 '교과서'이다 보니 표현 방식도 더 신중히 결정해야 했고요. 하지만 덕분에 제가 사는 지역인 부산의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교과 지식도 더 깊어졌습니다. 힘든 만큼 참 귀한 시간이었죠."

## 학생, 교사, 사회와 함께 자라는 성장형 교사

학교 안팎으로 역량을 펼치는 한편, 전공인 과학 수업에도 온 마음을 다한다. 특히 강정미 교사는 수업에 앞서 교육의 짜임새를 먼저 생각한다.

"저는 수업 시간에 단편적 지식만을 가르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하죠. 다시 말해,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다음 배워야 할 내용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지 그 과정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연구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은 다른 교사들에게 아낌없이 나눈다. 2020년부터 강정미 교사는 과학교육활성화지원단으로 활동하며 '창의융합형 과학실 수업 자료집', '중학교 블렌디드 수업 자료집', '스마트 학습기기를 활용한 과학과 교수학습 자료집' 등을 개발 및 보급해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양을 다졌다. 과학 탐구에 토론을 접목한 수업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그동안 나만의 수업이 아닌 우리의 수업을 위해 한 일들을 쭉 적어 보면 책 한 권이 될 정도다.

"지식만 습득하려 한다면 매일 여섯 시간씩 학교에 있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장소를 만들고 학생들을 모아둔 이유는 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친해지는 법을 배우고,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해 내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강정미 교사는 지역과 학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듯,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모으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정미 교사는 앞으로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사고와 관계가 점점 확장되도록, 또 교사가 더 성장하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요즘은 '스승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도 일선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선생님을 대신해 제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실 선생님들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지고, 수업 공간이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해도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앞으로도 저 역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것이 좋은 선생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도 여전히 완성된 교사는 아니다. 아버지를 통해 여러 차례 '교사'의 의미를 재정의했고,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야 그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듯 그는 앞으로도 계속 경험한 것을 양분 삼아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 기꺼이 학생들과 함께 자라나갈 것이다 Ⓚ

# 배움터가 된 마을에서 함께 기르고 행복을 나눕니다

## 춘천 봄봄유치원 **김명희 원장**

'한 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널리 쓰이는 것에 비해 그리 와닿지 않는 문장이다. '공동체'로서의 마을도, '놀이터'나 '배움터'로서의 마을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봄봄유치원 김명희 원장은 이 문장이 공허한 수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교육자다. 유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다양하고 다정하게 실천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자연스레 가르친다. 현실을 '동화'로 만드는 길 위에 그가 서 있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 배움터이자 놀이터가 된 마을

뒷산도 앞산도 연둣빛에서 초록빛으로 거의 다 옷을 갈아입었다. '신록(新綠)'이라는 낱말의 뜻이 오감으로 스며드는, 5월 초순의 춘천이다. 이름마저 '봄봄'인 이 유치원은 김명희 원장의 새 부임지다. 홍천남산유치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지 이제 갓 두 달. 그곳에서의 '유쾌한 실험들'을 새 마음으로 다시 시도해 볼 생각이다. 틈틈이 되돌아가는 초심이 그를 번번이 '신입'으로 돌려놓는다.

"홍천남산유치원은 2020년 9월 1일에 개원한 공립단설유치원이에요. 마을 전체가 유아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였어요. 온 마을 주민이 유아들의 교사이자 가족이었고요. 인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거기에서 배웠어요."

마을 안으로 유치원을 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던 장전평리 주민들은 약 2,300m²(700평) 밭을 유아들의 주말농장으로 선뜻 내줬다. 농사짓는 법도 기꺼이 가르쳐줬다. 농산물이 자라는 과정은 물론 기다림의 보람과 수확의 기쁨까지, 주말농장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레 배우도록 했다. 수확한 농산물은 '수업'과 '나눔'으로 연결했다. 그 가운데 '뻥튀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김명희 원장은 자신들이 수확한 옥수수가 어떻게 강냉이로 변신하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직접 오일장을 찾아가 '뻥튀기 아저씨'를 유치원으로 초대했다. 오감이 열리는 유쾌한 수업이었다.

"만들어진 강냉이는 유아들이 직접 봉지에 담아 마을 어르신들께 떡과 함께 나눠드렸어요. 고구마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론 유치원에서 청소며 방역을 해주시는 분들과 마을 일을 도맡으시는 이장·반장님께 선물을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고요. 평소에도 경로당을 방문해 노래 불러드리기, 어깨 주물러 드리기, 실뜨기 놀이, 동화책 읽기 등을 어르신들과 함께하곤 했어요. 배움과 나눔과 놀이가 하나였죠."

### 사랑이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마법

첫 시도였던 뻥튀기와 달리 '팝콘'은 그가 오래도록 나눔에 활용해 온 먹거리다. 교사 초창기인 1990년대부터 그는 직접 만든 팝콘을 마을 장터에서 팔고, 그 수익금으로 선물을 준비해 경로당이며 양로원, 보육원 등에 전달하는 일을 유아들과 함께해 왔다. 지난해 수익금으로는 마을 어르신 단체 관광 때 소정의 용돈을 협찬하기도 했다. 그게 못내 고마워 마을 어르신들은 직접 산타가 되어 유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유치원 꽃밭은 물론 유치원 앞길을 꽃길로 가꿔주는 동네 주민들. 사랑은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유아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워갔다.

"'흥부와 놀부' 동화 구연 수업 때는 마을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마을 할아버지가 박 타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손수 수확한 박에 직접 만든 톱으로 박을 타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여태 눈에 선해요."

인성이 곧 실력이라 믿는 그는 '마을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외에도 '인성 동화 읽기', '인성 동요 부르기' 같은 인성 중심 수업에 오래도록 힘써 왔다. '인성 동화'는 아이들의 사고력과 배려심을 길러주는 책들을 주로 선정한다. 한 달에 한 권씩 정해 반복해서 읽어주고, 집으로도 보내 학부모의 참여

도 이끌어낸다. 협동, 소통, 효, 존중, 배려 등을 주제로 매월 진행되는 '인성 동요' 부르기는 '고운 소리 맑은 소리'라는 마을 행사로 마무리된다. 1차 행사에는 마을 어른들을 초대해 유아들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2차 행사에는 마을 장터를 열어 주민들이 기른 농산물을 직거래한다. 마을 합창단도 초대하니 그 자체로 축제다. 공동체의 따뜻한 추억이 유아들의 성품에 차곡차곡 쌓인다.

"1990년부터 유아교육에 몸담았어요. 교사로 오래 일하다가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등을 거쳐 2020년 유치원으로 돌아왔고요. 올해는 인성교육뿐 아니라 환경교육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교사가 가장 좋은 '교재·교구'라 믿기 때문에, 사람과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려 해요."

삼삼오오 놀던 유아들이 최고의 교재·교구인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

# 지치지 않는 훈련과 사랑으로 장애 학생들의 재능을 꽃 피웁니다

## 한국선진학교 **박용석 교사**

박용석 교사는 '만능 스포츠 코치'다. 그동안 장애 학생들에게 지도해 온 종목도 다양하다. 육상, 탁구, 볼링,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스키, 스노슈잉, 스케이트 등 한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인생을 즐겁게 할 운동 하나쯤 있으면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스포츠 교육이 장애 학생들의 일상과 장래를 바꾸고 있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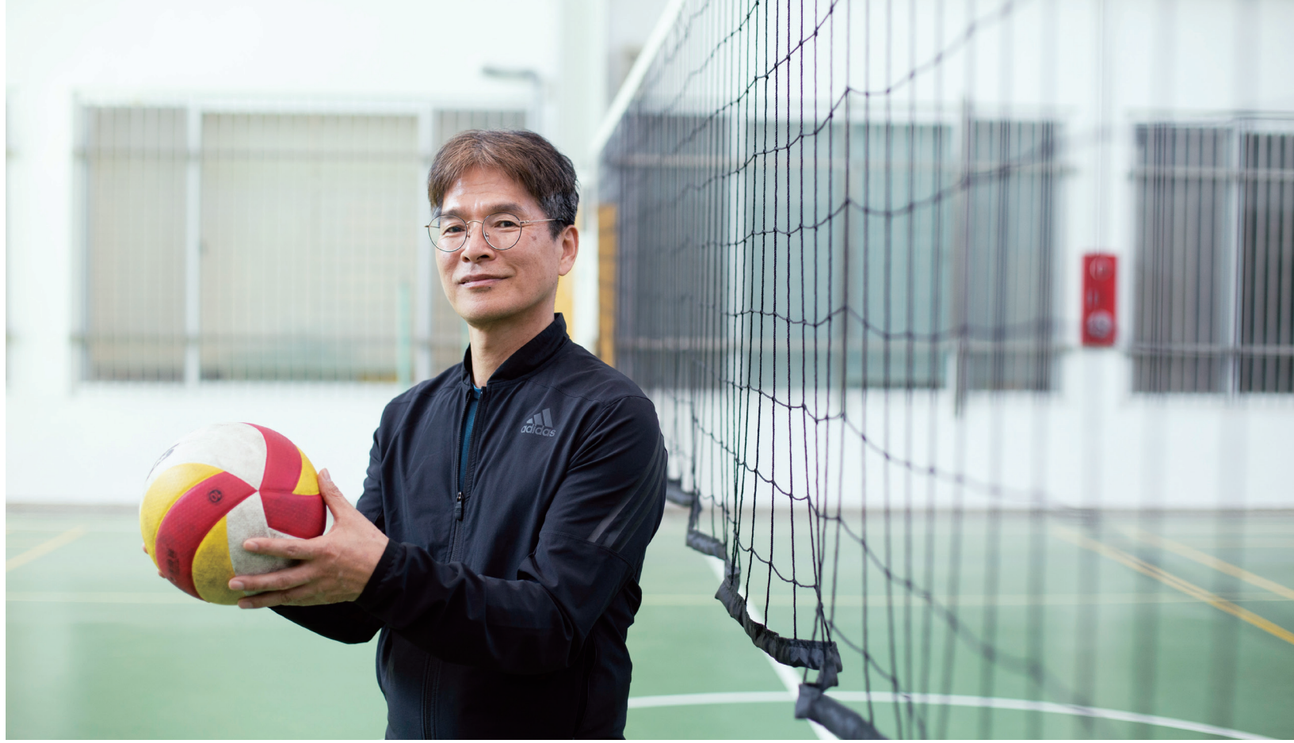
### 생활지도에서 시작해 대회 지도까지 나서다

고등학생 시절, 친구가 청각장애인 동생과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특수교사의 꿈을 품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특수교사로 장애 학생을 지도하며 보냈다.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첫 교직 생활을 시작한 곳은 보령정심학교다. 지금과 달리 1990년대 초반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 있는 학교가 많았고, 대다수 학생이 장애 시설 원생이기도 했다. 많은 학생이 방과 후에도 한정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다루는 일도 잦았다.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생활지도 차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으로 육상과 탁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취미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컸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보니 긍정적 효과가 많아요. 스포츠를 통해 방과 후 여가 생활이 가능해졌고, 집중력도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거든요."

취미로만 즐기는 학생도 있지만, 대회 출전을 통해 목표 의식을 갖는 학생도 생겼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꾸준히 유지하더니, 1999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세계특수올림픽하계대회에 2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뤘다. 1990년대에는 시설이나 가정에서 장애 학생을 데리고 외국에 나가는 일이 드물었다.

2012년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한국, 특히 특수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만 지내던 학생들이 외국에 머물면서 외국인 학생들과 경기를 치르고, 그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생활을 해보는 기회를 얻었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제 첫 마음이 결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학생들에게 더 큰 기회로 돌아오는 경험. 이는 그의 교직 생활을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 수만 번 반복으로 꽃피운 장애 학생들의 꿈과 재능

2000년에 국립지적장애중심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에 부임한 후에도 스포츠 지도에 주력했다. 개인차가 다양한 장애 학생들에게 스포츠 지도를 하는 일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여정이기도 했다. 하나의 특기를 가르치기 위해 같은 내용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한다.

"특수교육은 끊임없는 도전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아주 조금씩 어려운 것으로 과제를 세분화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각 학생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 맞춤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장애 학생에게는 쉬운 활동일지라도 장애 학생들은 더 긴 시간을 들여 익힐 때가 많다. 하지만 장애 학생들은 반복 훈련에 잘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내용을 1년 혹은 2년 넘게 반복하는 일이 절대 쉽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며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그동안의 노고가 잊히는 기분이다.

"장애 학생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장애인의 벽을 깨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를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동안 지도한 제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운동 한번 시켜보시죠?"라는 자신의 말에 잠시 망설이다가도 믿고 자식을 맡겨준 학부모들 역시 숨은 코치가 아닐 수 없다. 졸업 후 직장인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제자도 많아졌다. 스포츠 교육을 하면서 그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욕구'가 생겼다는 점이다. 스스로 달려보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나서서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자고 말하고, 국가대표를 목표로 삼기도 한다. 그는 희망한다. 장애 학생들이 교과 학습 외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오롯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이를 위해 그 역시 계속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2,800시간 '사제동행 봉사'를 통해 몸으로 가르치는 참교육

## 산촌유학교육원 **박현성 교사**

교사라는 자리는 참으로 어렵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은 물론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가치, 도덕, 예절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박현성 교사는 교실 안에서 그치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교직 기간을 돌아보면 2,800시간의 봉사, 1+1 기부, 찾아가는 북 콘서트, 재능 발굴 프로젝트 등 학생들의 인생 스승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글** 신시내 / **사진** 이용기

### 재능도 키우고 봉사도 하는 박현성 표 '사제동행 봉사'

박현성 교사의 교직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아마 '실천'이 아닐까. 그는 무엇이든 직접 배우고 실천하며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그중 그가 가장 오랫동안 공들여 온 활동은 봉사다. 노인 복지시설, 보육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인증 시간 2,800시간, 비인증 시간을 포함하면 4,000시간을 봉사에 헌신했다.

그가 봉사를 결심한 계기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어린 시절 치매에 걸리신 외할머니를 위해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할머니를 봐주러 집에 한 번씩 오시곤 하셨어요. 그때 '지금은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만 나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초급 장교로 병역을 마친 뒤 교사로 발령을 받고는 여유 시간에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료 교사였던 아내도 함께 봉사 활동을 하다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는 여러모로 뜻깊었지요."

이전에는 동료 교사들과 봉사를 하러 다녔다면 지금은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사제동행 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곳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한 가지를 개발해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빨래, 설거지, 청소 같은 간단한 활동 대신 재능을 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봉사 활동의 개념을 바꾼 거죠. 내가 잘하는 재능을 키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선순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주중에는 경남 함양에 위치한 산촌유학교육원에 머물다 주말이면 자택이 있는 김해로 돌아가 제자들과 봉사 활동에 매진한다.

교육 효과도 확실하다. 흔히 말하는 불량학생들도 봉사 활동을 갔다 오면 자신을 돌아보며 교화되고, 재능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감을 키워 스스로를 갈고닦는 시발점이 된다. 그가 하는 봉사는 직접 활동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종 경진대회나 표창장을 수여해 획득하는 상금을 1+1로 기부하며 물적인 지원도 더하고 있다. 100만 원의 상금을 받으면 사비로 100만 원을 더해 기부하는 식이다. 그는 이렇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봉사 활동을 통해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유수의 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을 봉사 활동지로 환원하고 있다.

### '내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을 향한 노력

박현성 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라는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하고 강의를 여는 재능 기부, '찾아가는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회 이상 실시했으며 학부모, 학생, 동료 교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학자들은 한국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로만 돌아간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제가 체험하고 생활하는 학교는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 학생 지도 관련 자격증이 100여 개인 데다 6,700시간, 450학점이라는 연수 시간과 학점을 기록할 정도로 교직 전문성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는 음악, 글쓰기, 과학, 발명 등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재능을 직접 발굴하고 지도하고자 했기에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덕분에 현재는 배움 중심 수업 전문가로 다른 교사들을 연수해 주는 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이지만, 목표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 "평범한 선생님으로 남아 나를 기억해 주는 제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뿐입니다. 모든 선생님이 그렇듯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인생이 변화된 것 같아요'라고 말해 주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나중에 만나 밥 한 끼 먹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소박한 꿈과 함께하는 그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바쁘게 움직일 듯하다. Ⓚ

# 발명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의 씨앗을 뿌리다

## 광주우산초등학교 **박수진 교사**

인류 역사 발전에서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발명'이 순위 안에 들지 않을까? 박수진 교사는 특별한 이들의 전유물일 것 같은 '발명'을 초등교육에 접목해 무수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발명 교육을 선택, 지금도 쉬지 않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열정 가득한 그를 만났다.

**글** 이경희 / **사진** 김선아

### 25년간 이어진 부단한 자기 계발 노력

발명 전담 교사인 박수진 교사의 일터는 여느 교실과 조금 다르다. 다양한 교육 기자재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중·고등학교에서나 볼 법한 복잡한 장비들이 교육 공간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흡사 대학 연구실을 방불케 한다. 이곳은 1999년 교육자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박수진 교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자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해 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배움과 발명 교육에 매진해 온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고 할까요. 초임 시절부터 에듀테크 기반 미래 과학 발명 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 AI 융합 교육 등을 꾸준히 수행해 왔는데 그간의 수고를 인정받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보람과 함께 책임감 역시 한층 커짐을 느꼈습니다."

박수진 교사가 수줍음이 묻어 있는 소녀 같은 미소를 짓는다. 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6개월간 근무하며 교직에 첫 발걸음을 뗀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한다. 특히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격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의 삶은 다양한 교육연수는 물론,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까지 쉼 없이 이어진 배움의 길 그 자체였다.

"제가 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석사 논문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발명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분석·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만 창의성이 아니라 실제로 발명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발휘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학생과 교사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 프로그램 개발과 강의 경험, AI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연수와 대학원 강의 경험, 광주교육대학교 창의융합교실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법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창의력·인성 모두 키우는 발명 교육

박수진 교사가 그간 수행한 발명 수업의 과정과 성과는 놀라웠다. 그가 부임한 초등학교마다 발명이 아이들의 특기이자 장기가 된 것. 창의융합교실을 구축해 'STEAM으로 설계하는 인공지능 미래 시계 만들기' 교육 기부 수업, 알버트와 햄스터 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 동아리 수업 등을 실시했고, 3·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동 진공청소 진동로봇설계 제작, 창의융합으로 개발하는 공성 무기 설계 제작, 감성 마케팅으로 제작하는 자판기 신제품 설계 제작, 미래 환경에 대비한 무한 상상 미니 숲 설계 제작 등의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부응, 2020년부터는 AI 데이터 리터러시 및 AI 발명 융합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켜본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와 스스로 뭔가를 배워 깨우쳤을 때의 차이가 극명한데, 자신이 새로운 생각을 발표하거나 구현했을 때 느끼는 기쁨의 질은 굉장히 높고 다르거든요. 창의 발명 수업에서는 학습에 부진하던 아이들이 놀라운 역량을 발휘해 담임선생님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또 수업 과정에서 늘어난 소통과 협력 능력도 제가 의도한 융합 수업에 부응해 인성교육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발명 교육을 통해 아이의 지식재산은 물론 미래 진로까지 학업성적과 연계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동자, 즐거워하는 얼굴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박수진 교사.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만든 결과물을 잘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창의융합 인재로 길러내는 데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그의 다짐이 아름답게 반짝거린다. Ⓚ

# 꾸준한 인성교육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행복한 학교

## 이매초등학교 **송미옥 교사**

학교는 안전하고 즐거운 배움의 공간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안전에 관한 이슈는 늘 뜨겁고 예민하다. 이매초등학교 송미옥 교사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그를 만나 학교폭력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이경희 / **사진** 김선아

###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근정포장을 수상한 송미옥 교사에게 이번 상은 그 어떤 포상보다 뜻깊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대한민국 스승"이라는 말로 직접 추천해 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선생님을 알아준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한 송미옥 교사는 추천해 준 아이들에게 수상 소식을 알려주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넘치게 감격하고 있었다.

송미옥 교사의 이번 수상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안전 문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응하기가 가장 두렵고 힘들다는 학교폭력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것은 송미옥

아이들과 함께 인성 수업 중인 모습

교사가 2014년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맡으면서부터다. 그는 이 시기를 두고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말과 상황을 다 겪었고, 학생과 학부모가 쏟아내는 감정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대부분 학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당한 사실보다 폭력이 일어났던 그 상황에서 아이가 드러내지 못한 감정에 집중하셨어요. '우리 애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한마디도 못 했어요', '차라리 그때 이렇게라도 표현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은 분이 하셨습니다."

송미옥 교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자기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교육을 하면 학교폭력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모두의 소중한 발걸음

그때부터 송미옥 교사는 본격적으로 공부와 연구를 시작했다. 교육과정에 '친구와 친하게 지내요', '친구를 존중해요'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힘들 때 '그건 불편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는 교육이 없다는 걸 알았고, 아이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그걸 자기 잘못이라고 여긴다는 사실도 터득했다. 자연스럽게 송미옥 교사의 교육은 자기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언어폭력 예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 인성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교재 「별별 프로그램」에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연구단'으로 활동하며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학교 안전 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의 밑바탕은 인성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교사들이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을 1년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 원칙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했고, 그 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서 나온다고 믿었기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송미옥 교사의 교실에는 원칙이 있다. 학기 시작 첫날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둘째 날은 아이들 스스로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든다. 셋째 날에는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클 게임을 하며 친해지고, 넷째 날에는 등을 맞댄 채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상대가 나와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임을 인지하고,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등 대화'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나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과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변화는 진실한 대화를 이끌어낼 때 나오고, 그 진실한 대화는 학생이 용기를 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벽이 높아도 결국은 아이가 용기를 내준다는 사실에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교육자로서 회의만이 가득했던 초임 시절을 지나 지금은 아이들과 주고받는 사랑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송미옥 교사. 그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 학교 안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힘주어 밝혔다. Ⓚ

# 발명과 창의로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다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배은식 교사**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믿던 시절은 지났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은 지금, 기술과 창의력, 실용성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그래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교육은 더욱더 긴요해졌다. 배은식 교사는 평생을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발명과 창의력, 창업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행해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온 인물이다.

**글** 이경희 / **사진** 김선아

청소년 미래 상상 기술경진대회 금상 수상

### 덕승재(德勝才)의 가치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다

'열정'과 '헌신'이란 단어를 인간화한다면 배은식 교사로 탄생하지 않을까? 그를 거쳐 간 수많은 제자는 물론 선후배, 동료 교사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격한 동의를 할 것이다. 31년의 재직 기간을 거쳐 어느새 퇴직을 3년 남겨둔 배은식 교사는 평생 교육을 통해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고자 노력해 온 인물이다.

"직업계 고등학교에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이 입학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거나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요.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배은식 교사는 궁리 끝에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방과 후 모인 아이들에게 사비를 털어 밥을 사 먹이고 간식을 사주면서 발명 동아리를 시작한 그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덕승재(德勝才)' 즉, 재주보다는 덕이 우선이라 늘 강조하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아이들을 독려했다.

"발명 동아리,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재능이 뛰어난 아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덕을 치고 올라가면 이는 망하는 겁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졌어도 한 방에 나락으로 가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례가 정말 많지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덕이 우선이라고,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은식 교사는 학생들과 만나면 늘 주도적으로 공수 인사를 하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의 이런 원칙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 성공과 실패, 모두 나의 스펙이다

오늘날 배은식 교사의 명성은 발명 교육, 창업 교육, 메이커 교육 등의 결과물이 쌓이고 쌓여 이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99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트리즈(TRIZ)' 덕분이다. "「발명특허의 과학」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만나면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 반 애들한테 전파해 보자 했지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40가지 발명 원리와 시간, 공간, 조건 등을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일컫는 트리즈를 배은식 교사는 4단계(문제 파악 중시)로 정리해 동아리 활동에 접목했고, 이를 기반으로 발명, 창의력, 창업 등 다양한 대회에 아이들이 도전하게 했다. 그리고 특허출원 및 창업 계획서 작성까지 다양한 실습을 경험하도록 주도했다. 아이들의 동기유발을 위해 시도한 다양한 학습 방법 또한 그의 강력한 무기였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청소년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금상, 2019년·2020년 세계청소년올림피아드대회 금상, 전국주니어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청소년미래상상기술경진대회 4년 연속 장관상 등 일일이 적기도 힘든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한없이 높아졌고, 해당 스펙으로 대학의 특별전형에 합격하는 아이들도 나왔다.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팀을 이룬 아이들의 소통과 협업 능력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키워졌고, 이들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 배은식 교사를 기쁘게 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직무 발명과 창업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그에게 흔한 일이었다.

배은식 교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펄떡이는 꿈을 갖고 있다. 그동안 연구하고 성과를 본 노하우를 집대성한 책을 집필 중이고, 창의학당 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초가 되는 봉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핸드폰에 저장된 아이디어 120개를 바탕으로 실용발명에 도전하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성공만이 스펙이 아닙니다. 실패도 스펙이에요. 제가 그랬듯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열정을 갖고 촉진자로서 그 책무를 끝까지 다하고자 합니다." Ⓚ

# 학교 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받을 존재만 있습니다

## 안산 관산중학교 **신경아 교사**

안드레이, 막심, 투이링, 나데즈다, 미연. 미술실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 속 이름에서 저마다 다른 나라가 그려진다.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각자 쓰는 문자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한 벽에 그림을 걸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며 관산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교실 안에는 국경이 없다. 사랑받을 존재이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있을 뿐. 그 믿음을 실천하는 관산중학교 신경아 교사를 만났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 이주 배경 청소년이 처음 만나는 한국 '학교'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특히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2009년 다문화특구로 지정되었고, 다문화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그 안에 자리한 관산중학교도 학생의 약 90%가 타국에 연고를 둔 이주 배경 청소년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여 개 나라의 문화가 한 학교 안에 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학생은 한 반에 두세 명뿐이다.

대부분 학생에게 관산중학교는 '처음 만나는 한국'이다. 또 교사는 낯설고 어색한 타국에서 만나는 '첫 어른'이다. 신경아 교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하며 수업에 임한다.

"저는 한국에서 자랐지만 태어난 곳은 일본이에요. 해외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의 영향으로 20년 전에는 '다문화 미술교육'을 대학원 논문 주제로 삼았고요. 하지만 처음 관산중학교에 왔을 땐 저도 놀랐어요. 그전까지 대입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여기에선 의사소통조차 자유롭지 못하니 당황했죠. 하지만 그만큼 미술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예술에는 언어도, 국적도 뛰어넘는 힘이 있으니까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언니에게 고려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들은 후로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좋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신경아 교사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양한 미술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언어·문화적 소통을 끌어내려고 한다. 학생들이 직접 '과일', '식물' 등 주제를 정해 그림을 그리고 한국, 중국, 러시아어로 적은 낱말 카드 '관산 말모이'를 만들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시간을 자주 선물한다. 일례로 '가족의 식탁'을 주제로 수업을 하는데, 이때는 가족이 즐겨 먹는 음식을 작품으로 그리고 만들며 소개한다. 친구의 작품을 감상하며 학생들은 타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름을 받아들이며 다문화 감수성을 키운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나와 친구를 배우고, 세상을 배운다. 과목은 '미술'이지만 이 시간은 국어, 문화, 세계, 친구 등 어떤 단어로도 대체될 수 있다.

###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는 전시

관산중학교에 부임하자마자 신경아 교사는 십시일반 예산을 모으고 외부 지원을 받아 방치되어 있던 미술실을 리모델링했다. 노랑, 파랑, 초록으로 벽을 칠하고 단장해 학교 미술관 '예술공감터'도 만들었다. 자투리 공간, 벽 어디에나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신경아 교사가 학교 안에 전시 공간을 늘리게 된 사건이 있었다. 부임한 첫해, 그는 학생 몇 명이 미술실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장난을 치려나 싶어 놀란 마음에 뒤따라갔는데, 아이들은 불 꺼진 미술실에 얌전히 앉아 벽에 걸린 자기 그림을 서로 자랑하고 있었다. 작품을 설명하는 아이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전시는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어"라는 격려와 칭찬이었다. 학교 미술관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신경아 교사는 유튜브 채널 '국경 없는 미술실'을 운영하고, 교육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학생들의 일상과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대폭 늘렸다. 이러한 활동은 타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만나는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신경아 교사에게도 학생들의 입시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때가 있었다. 하지만 관산중학교에서 그는 교육의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공교육이 인정받으려면 사교육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가르쳐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교육이란 학생을 '어느 학교에 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들 삶으로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학교 밖으로 나가서도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니까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니까요.(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

다문화 미술교육의 개척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경아 교사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학교가 받을 것을 내가 대표로 받은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부임 첫해에 모자란 미술 수업 예산을 메워주기 위해 다른 수업 예산을 쪼개 모아주던 동료 선생님들, 아이들 작품을 건다고 하니 못을 300개나 박으며 일손을 덜어준 교직원, 교사의 교육 철학을 지지하고 도와준 교감·교장 선생님, 이 모든 이가 참된 스승이고 수상자다. 더불어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이자 세계인이 인정할 스승상의 주인공이다. 신경아 교사와 동료 교직원들이 다문화교육 현장에서 그려놓은 그림이 훗날 다양성 존중의 사회로 가는 지도가 되어주리라 믿는다. Ⓚ

# 연구와 산업을 잇는 미래 생명공학연구의 비전 제시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장승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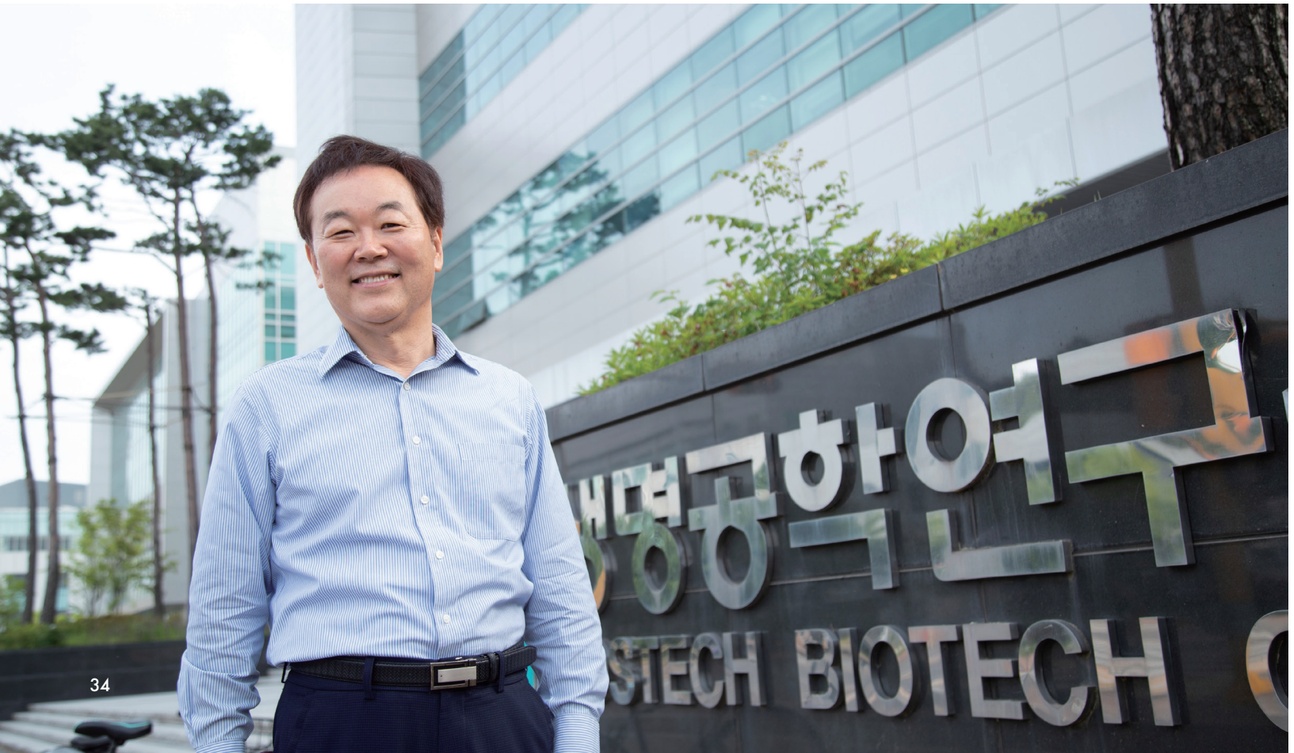
바이오산업 플랫폼으로 지역과 인류를 살리는 꿈. 장승기 교수는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다. 지난해 2월까지 8년간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장을 지낸 그는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포항시의 미래 산업으로 제안하고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도 건립했다. 연구와 산업을 잇는 '다리'가 되어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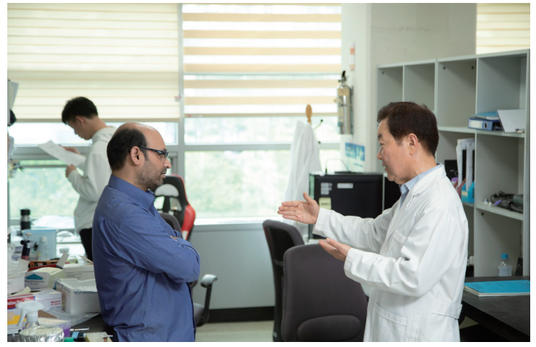
### 바이오를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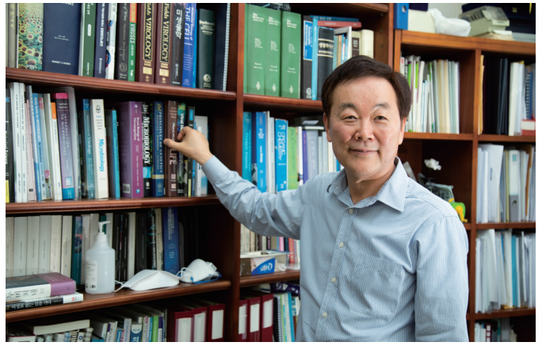
장승기 교수는 이른바 '긍정의 아이콘'이다. 20%의 가능성만 있어도, 성공 확률이 20%나 된다며 눈을 반짝인다. 미리 실망하거나 앞서 포기하지 않는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 성공은 그 끝에서 만나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그가 쌓은 성취들은 바로 그 긍정과 끈기의 결실들이다. 무엇을 만나도 해처럼 웃으면서 자기 앞의 '늪'을 기어이 '숲'으로 바꿔나간다.

"지난해 2월까지 8년간 포항공대 생명공학연구센터장을 맡았어요. 이곳은 학업과 연구와 산업이 서로 긴밀하게 공조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연구한 기술들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이 센터의 소명이죠.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신나게 달려온 시간이었어요."







그는 단지 연구의 산업화에 그치지 않고, 이 지역만의 독창적 산업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추진한 것이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미래 산업으로 그 사업을 제안하고 설득한 뒤,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21년 성공적으로 그 과제를 완료했다. 기존의 3세대와 한층 진보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를 설득하기 위해 유관 기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했죠. 생명과학 용어가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관련 기술을 이해시키려니 '쉬운' 설명이 필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성장했어요. 일반 대중에게 바이오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Bio-Open Innovation Center)'도 그의 주도로 건립됐다. 2020년 11월에 완공된 이 센터에는 1층과 2층에 모두 8개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3층에는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진이, 4층에는 줄기세포 관련 연구진이 각각 입주해 연구와 교육을 병행 중이다. 산학연이 더불어 성장해 간다.

### 학생들 스스로 길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스승

그의 주도로 건립된 플랫폼은 그게 끝이 아니다. 현존하는 약물들의 표적 중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구조생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세포막 단백질이다. 구조 기반 신약을 개발하려면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건설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했고 현재는 완공된 건물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가속기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려면 먼저 단백질의 결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세포막 단백질의 경우 이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설치했어요."

인공장기센터 유치도 그의 주요 공적이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이 플랫폼은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인공 장기를 만들어갈 '꿈'의 센터다. 그가 닦아놓은 초석이 인류의 건강을 성큼 앞당기고 있다.

'연구자'로서도 그의 성취는 압도적이다. 그는 IRES(Internal Ribosome Entry Site)라는 번역개시 요소를 최초로 발견하고, 'RNA looping 가설'을 발표해 번역개시 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이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원리를 규명해 치료제 개발을 이끈 것도,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 압타머를 이용해 15분 만에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한 것도 그가 이룬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 연구를 하는 사람은 많다"며 겸손해한다. '낮춤'이 '나아감'의 동력이다.

"1991년에 포항공대로 왔어요. 지난 32년간 교육자로서 제가 지켜온 한 가지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손대지 않고, 다그치지 않는 것. 성공 확률이 높진 않지만 학생들 스스로 길을 내게 하려면 그게 최선이라 믿어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낸 그가 환하게 미소 짓는다. 기다림이 곧 기쁨이란 걸 그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다. Ⓚ

# 교수와 교직원, 대학의 소통을 이끌고 '공감'으로 혁신을 이룹니다

##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강형일 교수**

강형일 교수는 '소통'의 대가다. 75명의 교수와 브레인스토밍 자리를 마련해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교수와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아우르는 혁신정책단을 꾸려 대학의 난제를 풀어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전공협의체'도 만들었다. 사람을 모으고 생각을 섞으면서 시대에 걸맞은 교육혁신을 거듭해 왔다. 그는 생명을 연구하며 '함께여야 온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배움과 가르침과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 소통으로 풀어가는 대학의 난제

강형일 교수는 대학 총장에게 구두를 선물 받은 적이 있다. '발이 부르트도록'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노고를 조직의 수장으로부터 재치 넘치게 치하받은 것이다. 때는 2019년. 순천대학교가 역량강화대학(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대학)에 속해 있던 그 무렵, 그는 기획처장 보직을 맡았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일이 그에게 주어졌다. 시대에 부합하는 학사 구조 개편이 시급했다.

"모두의 공감을 기반으로 대학 운영을 해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한 게 '교수 브레인스토밍(문제해결 아이디어 구상)'이에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교수 75명이 학사 구조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대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뭉클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원 감축과 증원을 동시에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올해 인원이 줄어든 학과가 자체 노력을 기울여 이듬해 인원을 늘리는 사례가 그렇게 생겨났다. 학과 간 융합도 일어났다. 가령 웰빙자원과, 식물의학과, 생물환경과는 농생명과학과로 통합됐다. 각자 조금씩 부족했던 세 학과를 하나로 합치니 최고의 시너지가 생겨났다. 그런 식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학과는 특별 지원 규정을 만들어 응원했다. 일련의 과정을 설득하기 위해 각 단과대학을 찾아가 교수 대상 설명회와 학생 대상 설명회를 무수히 마련했다. 말 대신 '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냈다.

"교수와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아우르는 혁신정책단도 만들었어요. 3개월 이상 그룹별로 모여 대학의 난제를 하나하나 함께 풀어나갔죠. 서로 대립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같이 생존할 방법을 모색했어요. 소통이 최고의 해법입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순천대학교는 역량강화대학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승격'됐다. 입학경쟁률,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전반적인 대학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다.

### 서로 토론하며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사 구조 개편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순천대학교는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 '다전공협의체'를 마련했다. 공과대, 사회과학대, 생명산업과학대, 사범대 등 6개 전공 9명의 교수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전공 수업에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기획 과제 중심의 팀 기반 수업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이 조별로 프로젝트를 기획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물로 '2022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아이디어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총장상'이라는 타이틀을 마련해 학생들이 치열하게 연구한 수확물을 기꺼이 축하하고 공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대학이 길러내야 할 인재라 생각해요."

강형일 교수의 환경교육은 대학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환경기술원의 지원으로 같은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다. 모두 30편이다. 유아부터 고등학생을 아우르는 수준별·주제별 환경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담아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진로 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대학교 '에코에듀테인먼트사업단'을 꾸려 활약하기도 했다. 지역 청소년들이 에코를 주제로 여러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두루 접하게 했다.

"지난해부터는 2명의 동료 교수와 함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지역 특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에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키워드에 우리 지역의 자산인 순천만을 추가해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토요일마다 6개 고등학교의 20명 학생과 함께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팀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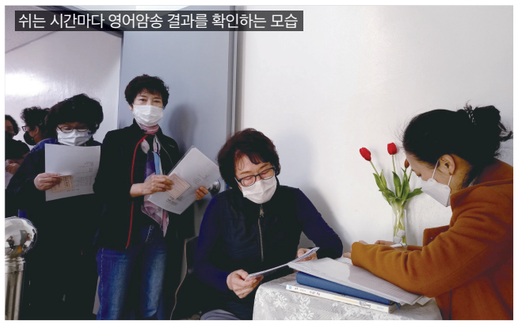
순천대학교에 온 지 올해로 21년. 아무 연고도 없던 이 땅에서 그는 꿈꾼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를, 순천만의 다양한 생물들처럼 모든 존재가 조화로이 공존하기를…. ⓚ

# 배움을 향한 열정 앞에 나이는 숫자일 뿐!

##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김은경 교사**

배우고 익히는 일에는 때가 없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만 68세. 인생에서는 대선배들이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과서와 씨름하며 공부하는 모습은 청소년 못지않다. 선생님의 설명 한마디, 판서 한 글자라도 놓칠세라 초롱초롱 눈을 빛내는 제자들 덕분에 김은경 교사는 '평생 배움'의 의미를 깨닫는다.

**글** 정라희 / **사진** 문동일



쉬는 시간마다 영어암송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

### 졸업장의 꿈에 도전하는 제자를 응원하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세요!" 김은경 교사의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에 제자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건넸다. 인사를 나누며 도란도란 대화하는 모습만 보면 누가 선생이고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한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어린 시절 이런저런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여성들이 공부하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남녀 모두 당연히 고등교육을 받지만,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혹은 '여자여서'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뒤늦게 배움의 기회를 찾아 스스로 선택해서 온 학교이기 때문일까. 학생들의 애교심과 학업을 향한 열의는 무척이나 뜨겁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나이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평균연령은 68세이지만, 30대부터 9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분들이 재학 중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통학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김은경 교사도 만학도로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다. 첫 입시에서는 미술을 전공하고 디자인 업무를 맡아 했지만, 20대 중반에 다시 입시를 치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한 것이다.

"어릴 때는 저도 '수포자'였어요. 그런데 수학도 공부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다들 원해서 시작한 공부여서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청 부리는 학생이 없죠."

### 만학도의 내면에 숨은 잠재력을 찾고 키우며

엄연한 학력인정학교인 만큼 수업 시간에도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김은경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도록 주부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수학적 원리와 엮어 설명한다. 그가 수학교사로서 교과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학급을 맡은 담임교사로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마다의 재능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요즘 세대와 달리 우리 학생들은 먼저 나서서 '하고 싶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 이끌어줘야 합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 노래자랑, 백일장 등 다양한 교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본선에 진출하면 유감없이 실력을 뽐낼 수 있게 강도 높여 연습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 분이 많아요. 본선은 마포아트센터에서 가족·친지를 초청해 치르는데, 그날은 메이크업과 드레스 코드도 맞춰 입고 그야말로 '주인공'이 된답니다."

그저 공부가 즐거워 학교에 오는 학생도 있지만, 인생 2막을 생각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대학 진학과 직무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많다. 실제로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 합격 100%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 김은경 교사는 학생들이 학력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접 과정이 있는 입시 전형에 도전하도록 권유한다.

"만학도 분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하기를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면접은 자기 이야기를 정리해 말할 기회이기도 해요."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더 잘해 보고 싶은 마음에 김은경 교사도 틈날 때마다 평생교육사2급,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 2급 등 다양한 자격증에 도전했다. 자신이 경험해 봐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할 때는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제자들이 실습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학생과 함께 하곳길 골목길 청소 후 기념사진

"졸업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제자가 많아요. 자녀 교육을 훌륭하게 한 분도 많아서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그는 말한다. 자신은 수학 공식을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삶의 지혜를 나눠준다고. 이처럼 배움이란 글 읽고 공식을 외우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김은경 교사도 진정한 평생교육의 의미를 깨달아 간다. Ⓚ

생애주기 중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바로 4050세대입니다. 「고민 상담소」는 책임은 막중하나, 위로를 받기 어려운 4050세대들이 가진 가정·직장 내의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 때론 가시 같은 상처를 입히는 가족과의 갈등 개선하기

**가족이 아픈 시대다. 최근 들어 가족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어느 집안이든 크고 작은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 부모와 자식 간 세대 갈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특히 거세다. '세대 전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지난해 동안 가장 많이 이뤄진 전화 상담 분야는 가족 문제로, 전체의 26.1%에 달했다. 노부모 부양 문제로 인한 형제 갈등, 성인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갈등 고민이 주를 이뤘다. 가족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해법을 함께 찾아본다.**

글 강일수 두디스코칭 대표

## 대인관계 갈등은 대부분 쌍방 과실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 부자 갈등, 형제 갈등 같은 가족과의 갈등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의견 불일치, 각자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불만, 의사소통 부족, 돈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로서 발생하는 갈등의 그 뿌리에는 인간의 본성적인 이기심과 욕심, 자존심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너무 편하고 가까운 사이기에 기본적인 예의조차 생각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가 있다. 결국 우리의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의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갈등은 줄지 않는다.

## 무례한 언행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갈등 상황이 되면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의식하지 못한다.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가족인데 말이다. 이처럼 절제되지 못한 감정 표현으로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초점이 상대보다는 자신에게 너무 많이 치우친 탓이 크다.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자기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 우리는 결함이 많은 인간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가족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는 결함이 많은 인간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먼저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적 성장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 사회적 가면을 벗은 적나라하고 진실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진정한 나를 기만하는 에고(ego)에서 벗어나 내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관계 안에서 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을 때 가족과의 갈등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사랑의 기술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가족을 편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예의가 필요하고, 적정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성을 키우고,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소통도 필요하다. 상대방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도 키워내야 한다.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지만 정중함을 갖출 때 설득력도 있다. 무례함에는 쓰라린 대가가 따르지만 정중함은 놀라운 효용을 가져온다. 정중함의 기본은 인사와 감사, 칭찬의 표현에서 시작한다. 정중함은 지혜로운 선택이며,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사랑의 기술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 길을 잘못 들어서면 경보음이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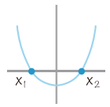
누구든 내면의 나침반을 무시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면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 가족과의 갈등에 의한 잡음이 바로 그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의식중에 가족에게 쏟아버리면서 생기는 잡음,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지나친 간섭을 함으로써 생기는 잡음, 유산 상속의 문제나 노부모 부양 문제 앞에서 지나친 이기심으로 인해 생기는 잡음, 부부 사이 가사 노동의 분담이나 역할 분담 앞에서 이기심과 자존심 문제로 생기는 잡음, 이런 경보음이 울릴 때면 스스로가 에고(ego)에 이끌려 정상궤도에서 벗어났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의식의 성장을 도모하며, 정상궤도인 '진정한 사랑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된다.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기여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하면서도 자신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인생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영혼은 메마르고, 그로 인해 삶은 비틀거릴 것이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려면 우선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나를 잘 돌볼 수 있을 때 가족의 삶도 도울 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는 물론 내적 평안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사랑이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

「인생 이모작」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퇴직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 내 인생은 이차함수!



# 그래서 인생 2막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 색소폰 연주 재능기부로 행복 전하는 '국민 스승' 전근배 회원

전근배 회원은 자신의 삶을 '이차함수 인생'이라고 정의한다. x=y로 똑 떨어지듯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해내는 일차함수 인생이 아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이왕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이차함수 인생이다.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그의 인생은 그래프를 그려놓은 듯 오목한 그릇 모양이 되었다. 삶 안에 많은 것이 담기기도 했다. 제자들이 담기고, 사랑과 행복도 담겼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삶의 그릇 안에 색소폰 소리를 담으며 살고 있다.

**글** 이성미 / **사진** 성민하

### 봉사와 교육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인생

경기도 이천 해강전원마을에 있는 단독주택. 전근배 회원이 최근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이다. 철마다 서로 다른 얼굴의 꽃이 피고, 창 너머 푸른 산자락이 액자에 담아놓은 듯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그는 아름다운 곳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로 '봉사'를 꼽는다. 봉사로 큰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다. 평생 교육에 헌신하고, 퇴직 후에도 '국민 스승'으로서 봉사한 것이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믿음 덕에 그는 여전히 봉사하러 가는 날이면 신이 난다.

봉사가 있는 날이면 색소폰과 스피커, 보조기구 등을 차에 싣고 나간다. 사람들에게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인근 요양병원, 경로당 등 그를 찾는 곳이 많다. 매달, 많게는 매주 찾아가는데도 "또 언제 오느냐"라고 묻는 어르신들이 있어 잠시도 걸음을 늦출 수 없다. 공연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섬마을 선생님', '해변의 여인', '찔레꽃', '내 나이가 어때서' 등을 연주하고, 인생 2막 이야기도 들려드린다. 어르신들에게는 '색소폰 교장 선생님'으로 익숙하지만, 13년 전 퇴직하기 전까지 42년 5개월간 교사, 교장, 장학관, 광주하남교육장을 역임했다. 그러고는 지금, 그는 학생들만의 선생님이 아닌, 국민의 스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전국 최초로 사랑의 종을 울린 산골 마을 총각 선생님

인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전근배 회원은 1968년 4월 경기도 용인 장평초등학교에 처음 부임해 2010년 8월 수원 신성초등학교 교장으로 교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교사가 되기까지 삶은 순탄치 않았다. 가난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재건학교(야간학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치렀다. 뭐든 혼자 힘으로 해내야 했다. 당시 재건학교 교장인 전영준 선생님만이 하루에도 열 번씩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며 그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외침은 전근배 회원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첫 부임한 장평초등학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 있었다. 학교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걸어서 40분 이상 가야 나오는 마을로 하숙을 옮겼다. 학생들 가까이에 머물기 위해서였다.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큰절을 올리고,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교사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놀지만 말고 저녁에 공부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저녁 공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이장에게 징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깨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징 하나도 귀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어 저녁 7시면 호루라기를 불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입이 아프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지만, 집 밖으로 들리는 책 읽는 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마다 돌아다니며 개별 지도도 했다. 밤 10시에는 다시 호루라기를 불어 '잘 시간'을 알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세운 종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되는 정성에 감동한 마을 이장은 징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동네 청년과 함께 통나무로 종각을 세우고 종을 울리게 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시작된 '사랑의 종소리'였다. 종소리의 효과는 대단했다. 그 후 KBS 방송에서는 밤 10시마다 "땡땡땡~ 청소년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하고 사랑의 종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게 했다. 또 새마을운동의 모티브가 되어 청와대 육영수 여사의 격려 편지도 받았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근배 회원은 등하굣길 인사 습관 들이기, 마을 청소하기, 국경일 태극기 달기 등 봉사와 애국정신 함양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고 또 실천했다. 물자 절약, 인성 교육, 환경 교육도 꾸준히 이어갔다.

우측통행 캠페인

우측통행 캠페인 색소폰 연주 봉사

(사)한국스토리예술연합회 팀과 함께 참가해 당당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직에 있는 동안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재능을 살려 국민 스승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말 그대로 퇴직 교직원들이 "온 국민의 스승이 되자"라는 것이다. 국민 스승 운동의 골자는 '애국'이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게 하고, 태극기와 애국가 바로 알고, 독도를 사랑하자는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는 건널목 우측통행 캠페인이다. 1905년 고종 황제는 우측통행을 법으로 정해 실천했다. 그러나 1921년 조선총독부가 총독부령으로 이를 일본과 같은 좌측통행으로 전환했다. 해방 이후 유엔이 차량은 우측통행, 사람은 그대로 좌측통행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서야 도로교통법으로 건널목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바꿨다. 일제의 잔재인 줄도 모르고 89년간 좌측통행을 지켜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근배 회원은 삼락회 회원들과 함께 건널목, 지하철역, 시장, 교차로, 공원 등에서 꾸준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 학생들의 스승에서 '국민 스승'으로

교사 시절 전근배 회원은 급훈으로 "하면 된다. 안 되면 다시 하자"를 외쳤다. 교장이 되고부터는 성실을 강조했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수원 신성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인사하며 아이들이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그는 매일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 나가 "굿모닝(Good Morning), 오하이요 고자이마스(おはようございます), 니하오(你好)" 하고 인사하며 아이들을 맞이했다. 교직원들도 함께했다.

이차함수 인생은 퇴직 후에도 계속되었다. 전근배 회원은 퇴직 후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해 색소폰 공연을 다녔다. 현직에 있을 때 독학으로 배운 재능을 사회에 나누기 위해서다. 그는 지금도 경기도 수원, 양평, 광주 등에 있는 요양원, 경로당, 노인대학과 지하철역, 각종 행사에 공연 봉사를 다니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 논개 시낭송퍼포먼스대회'에

## 담기는 것이 많은 이차함수 인생

전근배 회원이 이토록 봉사에 열정인 이유는 자신이 베푼 사랑과 봉사는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집 2층에 개인 교육 연구소를 두고 신문, 방송에 소개된 기록을 모아 전시해 두고 있다. '종소리에 깨어난 마을'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1970년 8월 12일), 청와대에서 육영수 여사가 보내온 편지(1970년 9월 11일), 물자 절약 운동을 다룬 TBC 방송 '인간만세'(1976년 10월 29일), 은퇴 후 '성교육예방지원단'을 발족한 일을 다룬 경기신문 기사(2011년 1월 19일) 등은 살면서 받은 훈장(勳章)과 같다. 벽을 따라 걷기만 해도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저는 먹고 살 것이 아주 많습니다. 교사로서 해온 활동과 성과, 학생들과 쌓은 추억, 주위의 응원과 격려, 이 모두를 나열하려면 하루가 부족하거든요. 추억만 먹고 산다고 해도 배가 부를 거예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주어진 일만 해내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내십시오. 이차함수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은퇴 후 노후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봉사가 힘에 부치는 건 사실이다. 전근배 회원은 "색소폰을 연주하려면 들고 다닐 것이 많아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어요. 여든까지만 봉사하고 그만둘 것"이라며 손을 젓는다. 그러나 조심히 예견하건대, 아마 그는 힘이 닿는 한 평생 자신이 가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 것 같다. 이차함수 인생의 재미를 아는 그가 어떻게 직선으로만 걸을 수 있을까. 아마 그는 평생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해낼 것이다. 사람을 계속 담아낼 것이다. 퇴직 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정원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다. Ⓚ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는 여행이 간절하기만 요즘,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숨은 명소와 식도락 여행을 즐기는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 청초한 파스텔컬러 수국 만나러 한국의 나폴리로 떠나다

# 경남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통영의 6월은 만개한 수국의 파스텔컬러로 채색되는 산뜻한 계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금이 바로 통영으로 여행을 떠날 최적기다. 광도천과 연화도 수국 꽃길을 산책한 뒤 케이블카로 미륵산에 훌쩍 오르면 충무공이 승전한 바다 한려수도와 만날 수 있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통영시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비,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통영 전경

##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소담스러운 꽃길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수려한 바닷가 고장이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영 본영을 설치했던 한산도를 비롯해 미륵산, 달아공원, 동피랑벽화마을, 소매물도 등 전통적 여행 명소를 품고 있는 것은 물론 온화한 기후로 많은 여행자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는 남해안 최고의 여행지가 바로 통영이다. 최근에는 케이블카, 스카이라인 루지 등 통영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을 보다 짜릿하게 경험할 수 있는 레저시설이 속속 운행을 시작하면서 보다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이 성큼 다가온 이 무렵, 통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싶다면 청초한 파스텔컬러를 머금고 만개한 수국을 찾아야 한다. 하천을 따라 노산교에서 덕포교까지 왕복 2km에 걸쳐 펼쳐지는 광도천 수국꽃길은 여행자 사이에서 이 계절에 반드시 들러야 할 필견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일원에 조성된 광도천 수국꽃길은 2017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꽃길이기에 더욱 뜻깊은 장소다. 그뿐 아니라 초여름 수국을 비롯해 봄 벚꽃, 가을 구절초를 테마로 계절별 꽃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통영의 떠오르는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 벚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워 한낮의 따가운 태양을 피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 역시 여행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매년 6월 중순에는 '광도빛길 수국축제'가 개최되는데 빛길음악회, 시민노래자랑, 초청 가수 공연, 아이들을 위한 꼬마화가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공연 및 참여형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수국꽃 화분 등을 판매하는 페스티벌 마켓도 열려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오션마켓'에서는 통영시민과 광도면민이 직접 생산한 로컬 푸드, 수공예품, 수제 먹거리를 판매해 인기다.

연화도 수국

광도천 수국꽃길

##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수국의 향연

광도천 수국꽃길이 화사하면서도 소담한 아름다움을 지녔다면 반대로 탁 트인 바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과 어우러진 수국의 향연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소매물도, 욕지도, 한산도, 장사도, 사량도 등 통영이 거느린 수없이 많은 섬 중 아름답기로는 그 어느 명승지에도 뒤지지 않는 연화도가 바로 그곳.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연화도는 유교가 국가 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 억불정책을 피해 연화도사가 제자들과 은둔했던 낙토(樂土)였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사가 입적하자 세 명의 제자와 섬 주민들은 고승의 유언에 따라 시신을 바다에 수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물에 떠내려가던 도사의 주검이 한 송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변한 것이다. 마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연화도사에 얽힌 구전으로 인해 이 섬은 연꽃을 뜻하는 '연화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연화도는 남해안 특유의 비경이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고 연화사, 보덕암 등 사찰 탐방도 겸할 수 있는 섬 종주 트레킹 명소다. 바로 이 섬 트레킹을 하는 동안 만개한 수국을 함께 즐긴다면 그야말로 초여름 통영으로 떠난 여정에 화룡점정일 것이다. 트레킹 코스도 단순해 산행에 조금 익숙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연화봉에서 보덕암을 거쳐 그 유명한 출렁다리까지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코스에 따라 8~9km 거리를 쉬엄쉬엄 걷는 경우 반나절은 족히 걸릴 법한 트레킹이 부담스럽다면 연화사, 보덕암, 연화봉 정상만 들러도 된다. 일주문에서 시작된 수국의 향연은 연화도사 전설이 깃든 연화사를 거쳐 보덕암과 연화봉까지 이어지며 꽃불처럼 번져가기 때문이다. 특히 멀리 섬 동쪽 끝자락의 절경인 용머리와 어우러진 수국은 인증샷으로 반드시 남기고 돌아오길 추천한다.

## 우리나라 벽화마을의 원조, 동피랑

동피랑벽화마을을 빼놓고 통영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나라 벽화마을의 원조 동피랑은 통영중앙전통시장 뒤편 언덕 위에 형성된 자연 부락으로, 2007년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18개 팀이 철거 예정인 동호동 일원 곳곳에 벽화를 그리면서 탄생했다. 벽화는 이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철거 계획이 취소되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다. 수군통제영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동포루(東砲樓)가 복원될 일부를 제외한 동피랑마을 전체가 기적처럼 회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벽화가 그려지고, 시설물 보수가 이루어지는 등 마을 전체가 통영의 보물로 인식되고 있다.

동피랑마을을 둘러보려면 거북선이 정박되어 있는 강구안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서 이동하는 편이 낫다. 등대, 바다, 버스 정류장, 수국, 날개, 이순신 장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그림이 온 마을을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다. 골목 어귀마다 카페와 맛집이 숨어 있으므로 쉬엄쉬엄 마을을 둘러보며 정상까지 오르면 된다. 정상에는 통제영 유적인 동포루가 복구되어 있다. 장수가 병사들을 지휘하던 동포루는 삼도수군통제영을 왜군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통영성의 유적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민가가 생기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성곽의 흔적만 남은 것을 통영시가 복원했다. 현재 성곽 일부와 함께 동포루, 서포루, 북포루가 복원되었다.

동피랑마을

동포루 별밤

### 케이블카 타고 단숨에 미륵산 올라볼까

미륵산에서 바라본 한려수도 풍경은 통영 8경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뛰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과거에는 땀 흘리며 산행을 통해 미륵산 정상에 올라야 볼 수 있었던 풍경이지만 케이블카가 개설된 이후에는 누구든 단박에 해발 461m의 미륵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블카 하부 역사 인근에 자리 잡은 스카이라인루지 역시 요즘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형 레저시설이다. 탑승자가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며 3.8km 길이의 트랙을 내려오는 스카이라인루지는 빠른 스피드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활강 주행이 특징. 최고 지점과 최저 지점의 차이가 건물 35층 높이에 달하며, 30개의 곡선 구간으로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전체 길이 1,975m에 달하는 케이블카는 국내 일반 관광용 케이블 중 최장 길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곤돌라에 오르면 불과 10분 만에 상부 역사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미륵산 정상까지는 잘 닦인 탐방로를 따라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전망대에 서면 일망무제 바다와 하늘이 닿는 아득한 수평선을 따라 점점이 박힌 섬 무리와 함께 통영시 전경을 발아래 두는 호사를 누리게 된다. 충무공이 대승을 거둔 한산대첩의 바다가 초여름의 청량한 빛깔을 머금은 채 빛나고 있다. Ⓚ

스카이라인루지 통영

통영케이블카

한려수도 풍경





# 새콤달달한 바닷가 고장의 먹거리

### 통영을 대표하는 간식 꿀빵

지금은 너도나도 꿀빵을 만들어 팔 정도로 대중적인 먹거리가 되었지만 통영의 대표 먹거리인 꿀빵의 원조는 통영시 봉평동 소재의 '오미사꿀빵'이다. 1963년대 초 제빵사였던 故 정원석 씨가 집 앞 가판에서 배급받은 밀가루로 도넛과 꿀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오미사'라는 상호는 바로 옆 세탁소에서 빌려왔다고. 훗날 세탁소는 사라지고 오미사는 꿀빵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다. 무려 60년 전통의 먹거리인 셈이다. 튀겼지만 느끼함이 덜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인 오미사 꿀빵은 서호시장 뒤편 항남동 본점 외에 봉평동에도 지점을 두고 있다. 또 동피랑벽화마을 인근 강구안 도로변에도 꿀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가 무수히 많다.

### 뱃사람의 소박한 만찬 충무김밥

영화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으로 충무김밥을 꼽은 일화는 유명하다. 충무김밥은 무를 큼지막하게 썰어 만든 석박지와 매콤한 오징어무침에 하얀 쌀밥만 넣어 만 작은 김밥을 곁들여 먹는 통영의 토속 음식. 과거 냉장시설이 변변치 않던 시절, 고깃배 위에서 조업 도중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 충무김밥의 시초다. 김밥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징어무침과 석박지를 밥만 넣은 김밥과 따로 담았던 것.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음식보다 향토색이 짙은 충무김밥은 한때 전국구 음식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서울 명동에 충무김밥 전문점이 생겼을 정도.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등장해 충무김밥의 아성을 위협하지만 여전히 통영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통영항 여객선터미널과 강구안 일원에 충무김밥집이 몰려 있다.

### 수려한 바닷가에서 즐기는 해산물 파티

바닷가에 왔다면 응당 싱싱한 해산물을 맛봐야 할 것이다. 통영 항남동에 있는 명촌식당(055-641-2280)은 1만 원짜리 한 장으로 즐기는 푸짐한 생선구이 백반 전문점. 고등어, 볼락, 전갱이 등 매일 다른 생선을 구워 상에 낸다. 생선구이 위에 양념장을 얹는 점도 독특하다. 경상도식 매운탕을 맛보고 싶다면 통영시민문화회관 인근의 한산섬식당(055-642-8021)을 찾아가 보자. 20년 넘게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이 식당은 통영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으로 끓인 시원한 매운탕이 주메뉴. 계절에 따라 도다리쑥국, 쥐치매운탕, 대구탕 등을 선보인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바다가들린다(0507-1403-8892)는 싱싱한 해산물을 숯불에 올려 즐기는 해산물 바비큐로 유명한 집. 캠핑을 테마로 한 실내장식이 독특하다.

## 옛것을 고쳐 새롭게 탄생한 복고 콘텐츠의 매력

# 뉴트렌드로 떠오른 콘고지신

**20년 전 가요계를 이끌던 HOT, 핑클 등 아이돌 1세대의 노래가 10대들로 구성된 새로운 아이돌들이 리메이크해 부르며 엄마와 딸이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연출된다.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추억의 달고나 게임은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인기 만화 슬럼덩크, 포켓몬 등도 성인이 된 어린이들의 감성을 훈훈하게 자극하고 있다.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온고지신(溫故知新)에 영어 단어 콘텐츠(contents)를 합쳐 만들어진 콘고지신은 '좋은 콘텐츠는 시공간을 막론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실감케 하는 신조어이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콘텐츠 속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은 콘고지신 이야기를 소개한다.**

글 김고금평 머니투데이 기자

어릴 때 방과후 집으로 가는 길엔 언제나 달고나 아저씨가 계셨다. 여기저기 긁힌 그을린 국자에 설탕 두 스푼과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넣고 순식간에 불에 달구면 부풀어 오르는 그 팽창력에 한 번 놀라고, 설탕보다 더 달아서 이름 붙은 '달고나'의 맛에 또 한 번 놀란다. 그렇게 달고나는 학창시절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었고, 영원한 간식이었다.

절대 잊히지 않을 것 같던 달고나에 대한 중년의 기억은 어느새 뚝 끊겼다. 새로운 간식거리와 복잡한 신문물의 도입으로 과거의 우리 '이웃'들은 금세 자취를 감춰버렸다.

'오징어게임' 양상블 포스터와 오징어게임 스틸컷[사진 제공_넷플릭스]

추억을 재빠르게 재생시킨 건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였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까맣게 잊고 있던 달고나가 기억 속에 재등장했고, 중년의 미각과 후각이 다시 꿈틀거렸다. 10대나 20대가 된 자식들도 덩달아 흥분했다. 중년에겐 과거의 부흥이지만, 자식들에겐 새로운 세계였기 때문.

추억과의 재회는 신구 세대 모두에게 축복이다. 구세대는 단순히 아름다운 과거의 순간을 반복 재생하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신세대와 소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신세대는 '노땅'이나 '꼰대' 정도로 취급하던 구세대의 알찬 정보와 흥미 가득한 경험에 탄복한다. 신구 세대를 이어주는 끈은 모두 과거의 콘텐츠에서 나오는 셈이다.

구세대에겐 레트로(retro, 복고)이고, 신세대에겐 뉴트로(new-tro,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인 콘텐츠가 '콘고지신'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콘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온고지신(溫故知新)에 영어 단어 콘텐츠(contents)를 합쳐 만든 신조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3년 콘텐츠산업을 전망하면서 제시한 열 가지 키워드 중 하나다.

레트로나 뉴트로는 어느 시점까지 과거로 봐야 할지 불분명하지만, 콘고지신은 대략 20, 30년 전후의 콘텐츠를 압축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 1990년대 전후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콘고지신의 줄기를 이룬다.

너무 과거로 돌아가면 괴리감이 커 신세대에게 되레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지금 시대와 가까우면 최근 콘텐츠와 유사해 식상해 보일 수 있다. 20, 30년 전 콘텐츠는 촌스럽지만 극복할 정도인 데다 스토리는 더 감동적이고 깊이가 있어 묘한 신선함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콘고지신 콘텐츠는 무조건 옛것이라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성공' 이력이 있어야 한다. 중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검증 상품이 신세대의 시험대에 올라 재평가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세대는 이미 잊었지만 오래전 좋아했던 콘텐츠에 다시 흥분하는 셈이고, 신세대는 몰랐지만 좋아할 가능성이 큰 콘텐츠를 쉽게 수용하는 것이니 비즈니스 모델로 이만큼 어울리는 상품이 없는 것이다.

슬램덩크 등장인물[사진 제공-NEW]

「슬램덩크」는 1990년대 1억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만화다. 그 정점의 인기를 맛보고는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최근 26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되살아났다. 과거 콘텐츠인 만큼 흥행 기대감이 크지 않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올해 1월 4일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애니메이션은 개봉 2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스크린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팬들의 폭발적 지지로 얻은 성과여서 더욱 값졌다.

여세를 몰아 출판 시장도 들썩였다. 곳곳의 서점에서 「슬램덩크」 특별판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찍는가 하면, 만화 부문 1~20위 모두 「슬램덩크」가 차지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1998년 개봉 당시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에 올랐던 영화 '타이타닉'도 올해 25년 만에 재개봉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못지않은 인기가 중장년 세대와 신세대의 예매율을 통해 두루 증명됐다.

영화 '중경삼림'(1995), '매트릭스'(1999) 등 20, 30년 전 콘텐츠도 새로 단장하면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서사의 진의가 '뜨겁게' 또는 '새롭게' 읽히고 증명되면서 콘텐츠의 소비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1996년 게임으로 먼저 출시돼 큰 인기를 모은 '포켓몬스터'는 국립극장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변주됐고, 일본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는 오는 12월 뮤지컬로 각색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막을 올린다.

2000년 등장해 당시 '엽기토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진 토끼 캐릭터 '마시마로'는 올해 토끼해를 맞아 기업들과 새로운 협업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밀 맥주 브랜드 '카스 화이트' 판촉 행사의 일환으로 마시마로 한정판 굿즈를 출시했고, 이랜드가 운영하는 SPA 브랜드 스파오도 마시마로와 협업 상품을 내놓았다. 3040 세대에겐 '엽기'로, 1020 세대에겐 '애착'으로 투영되는 마시마로의 다층적 개성이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콘고지신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성공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가진 '무한 흡수력'이다. 이들은 어느 하나의 플랫폼이나 어느 하나의 장르에 묶인 시스템과 거리가 먼 세대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모국어처럼 이해하는 이들은 어떤 콘텐츠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특히 각종 OTT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 콘텐츠를 동시에 경험하며 장단점을 금세 파악하는 흡수력은 앞선 어느 세대보다 강력하다. 지금 유행하는 콘텐츠에 실시간 반응하면서 20, 30년 시간을 거스르는 콘텐츠에도 쉽게 눈을 뜬다는 얘기다.

나머지 하나는 상상만으로 있을 법한 새로운 소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변동성'이다. 좀비, 우주, 괴생명체 같은 소재가 한동안 중요한 콘텐츠 제작의 원동력으로 평가받았지만, 내실이 부족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서사에 동요하지 않는 것은 지금 세대가 보여주는 냉철한 특징 중 하나다. 기성세대가 이미 환호한 의미 있는 서사에 대체로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것도 시대가 달라도 감동과 재미 포인트는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셈이다.

공들인 콘텐츠의 유효기간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20년, 200년 먹거리를 위해 콘고지신의 의미와 역할이 계속되는 이유다. Ⓚ

Pokemon the Orchestra 신화의 땅에서[출처-국립극장]

베르사유의 장미 뮤지컬[EMK뮤지컬컴퍼니 제공]

「건강한 집밥」은 냉장고에 있는 일상적인 재료와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특별한 한 끼 상차림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맛은 가볍게, 영양은 알차게

# 색다른 여름 보양식, 애호박 요리

**무더운 여름, 더위로 체력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때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 체력 보충을 위해 갖가지 보양식을 챙겨 먹는 '복날'이라고 부르는 세시풍속이 있죠. 이때 주로 먹는 음식은 삼계탕, 장어, 추어탕, 전복 등인데요, 주로 육질이 연한 고단백질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 대신 가끔은 채소를 보양식으로는 먹어보면 어떨까요. 그중에서도 애호박은 칼로리는 낮으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가득해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답니다.**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 식탁 위 감초 채소 '애호박'

애호박은 사시사철, 메뉴를 막론하고 다양한 요리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채소입니다. 과거에는 사찰의 승려들이 즐겨 먹던 채소라는 의미로 '승소'라고 불리기도 했던 애호박은 이제는 모든 이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채소가 됐습니다.

애호박은 무난한 향과 맛,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과 달리 과육이 단단해 죽이나 수프보다는 구이나 볶음에 더욱 잘 어울리는 맛을 냅니다. 각종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적당히 아삭거리는 식감을 유지해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애호박은 영양 면에서도 추천할 만한 재료입니다. 호박은 종류별로 효능이 다른데, 애호박은 비타민 A가 많아 피부 손상과 노화 예방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칼로리가 낮고, 소화흡수가 잘돼 입맛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먹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유식이나 환자식 재료로도 많이 사용하고, 당뇨 또는 비만 환자에게도 추천하는 채소입니다.

### 사시사철 즐기는 고마운 채소

애호박은 3월부터 10월까지 제철이므로 겨울 외에는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고를 때는 꼭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꼭지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여기에 꼭지 주변이 움푹 들어가 있으면 더욱 부드럽고 단맛이 난다는 표시입니다. 표면은 상처가 없이 매끈해야 하고,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이 든 것이므로 피합니다. 제철 애호박은 들었을 때 묵직하면 수분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 달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최근에는 비닐에 씌워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인큐애호박'이 많아 보관 기관이나 생장이 일정하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보관할 때는 인큐애호박처럼 랩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꼭 감싸면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반달썰기를 한 뒤 보존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때는 서로 엇갈리게 담아야 쉽게 떨어지고 사용하기 편하니 꼭 기억하세요.

### 굽고 볶아 먹어야 더 효과적

애호박은 지용성비타민이 많아 찌거나 삶는 요리보다는 기름을 이용해 굽거나 볶는 요리를 먹을 때 그 효능을 더욱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애호박전, 채소구이 등의 메뉴는 가장 추천할 만한 메뉴입니다. 물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으면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우러나 요리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많습니다.

호박은 새우젓과 궁합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애호박을 볶을 때 새우젓을 넣으면 삼투현상으로 과육이 단단해집니다. 여기에 새우젓의 감칠맛이 더해져 맛도 한층 좋아집니다. Ⓚ

## 오징어애호박국

애호박과 시원한 맛의 오징어, 칼칼한 맛이 나는 고추장, 고춧가루를 넣고 한소끔 끓인 국. 이 국 한 그릇이면 이열치열,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재료** 오징어(중간 크기) 1마리, 애호박 1/2개, 양파 1/2개, 대파 1/3개, 멸치·다시마 육수 4컵
- **양념 재료** 국간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1/3큰술, 다진 마늘 1/3큰술, 소금 적당량

TIP 오징어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질겨지니 채소가 어느 정도 익은 뒤에 넣으세요.

*** 만드는 방법**

❶ 오징어는 껍질을 벗긴 후 물에 씻어 몸통 안쪽에 칼집을 내어 썬다.

❷ 애호박은 반달썰기를 하고, 양파는 굵직하게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❸ 국간장,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소금 적당량을 한데 섞어 준비해 둔다..

❹ 멸치·다시마 육수에 애호박, 양파, 양념장을 넣고 끓이다가 재료가 익으면 오징어를 넣어 한소끔 끓이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다.

# 애호박 달걀 국수

밀가루 국수 대신 애호박을 채 썰어 넣은 이색 메뉴입니다. 국수보다 아삭하면서도 산뜻한 식감에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 **재료** 애호박 1개, 달걀 2개, 건새우 1/4컵, 멸치(국물용) 3마리, 물 5컵

• **양념 재료** 국간장 1작은술, 액젓 1작은술, 참기름 1/2작은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TIP 지단을 부칠 때 달걀 1개에 식초 1방울을 넣으면 잘 찢어지지 않아요.

*** 만드는 방법**

❶ 애호박은 필러로 얇게 슬라이스한 뒤 국수 가닥처럼 가늘게 채 썬다.

❷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물을 부어 지단을 부친 후 얇게 채 썬다.

❸ 마른 냄비에 건새우와 멸치를 넣고 중간 불에서 살짝 볶은 다음, 물을 붓고 한소끔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여 20분간 육수를 우린다.

❹ 새우와 멸치를 건져낸 육수에 채 썬 애호박을 넣고 한소끔 끓여 국간장과 액젓으로 간한다.

❺ ④에 달걀지단, 건져둔 새우를 넣은 뒤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 애호박 치즈 샌드위치

서양에서는 주키니를 다양한 빵의 속재료로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대신 애호박을 사용해 봤어요. 치즈와 어우러져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애호박 맛에 새삼 반할 거예요.

• **재료** 애호박 1개, 잡곡 식빵 4장, 양파 1/4개, 양송이 80g, 피자 치즈 1컵

• **양념 재료** 허니 머스터드 2큰술, 씨겨자 2큰술, 소금 약간, 올리브유 약간

TIP 치즈가 녹을 수 있도록 ❻ 과정에서 뚜껑을 닫고 구워주세요.

*** 만드는 방법**

❶ 애호박은 3mm 두께로 동그랗게 썬 뒤 소금을 약간 뿌려 10분 정도 두었다가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❷ 양파는 채 썰고, 양송이는 슬라이스한다.

❸ 허니 머스터드와 씨겨자를 섞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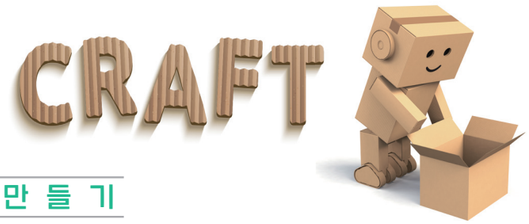
❹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호박과 양송이를 노릇하게 볶는다. 양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한 뒤 한 번 더 볶는다.

❺ 식빵에 ③을 고루 바르고 한쪽 빵에 호박, 치즈, 양송이, 양파, 치즈, 호박을 차례대로 올린다.

❻ 다른 한쪽 식빵으로 ⑤를 덮은 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회·문화계 인사들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재활용품을 활용해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종이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소비
# 소셜벤처 '그레이프랩'




## & 재활용품으로 사무용품 만들기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물건을 사지만 그 물건은 대부분 평생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낡고 고장 나버리는 것이 수순. 그렇게 버려진 물건은 하나둘씩 쌓여 산더미 같은 쓰레기 산을 만든다. '그레이프랩'은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소비하자는 취지로 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소외계층을 위해 일자리도 제공하는 소셜벤처이다. 보통의 회사라면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그레이프랩의 김민양 대표를 만나 진정 지속 가능한 사회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의 소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줄 재활용 종이로 사무용품 만드는 법도 함께 소개한다.**

글 편집실 /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 **사진** 성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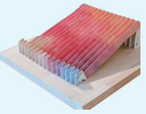
### 결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없애려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물건 대부분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쓰고 난 그 물건들은 녹여서 다른 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분리배출에 힘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지 않다. 물성에 따라 잘 휘는 것, 투명한 것, 색을 입힌 것, 열에 잘 버티는 것 등 눈에 보이는 특성 하나하나가 다 다른 플라스틱임을 나타내는 증거와도 같다. 그중에는 더 좋은 기능을 위해 플라스틱 두세 가지를 섞어 만든 것도 있다. 이런 혼합 플라스틱은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물건일지 모르지만 재활용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는 이런 혼합 플라스틱 재질이 생각보다 많아 실제 재활용률은 14% 정도에 그치고 만다. 심지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땅속에서도 썩지 않아 사용하면 할수록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가 늘어날 뿐이다.

그레이프랩은 근본적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자 최소한의 자원과 공정을 가한 종이 제품을 개발·판매한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100% 재생지와 돌 종이 등을 활용한 노트북 스탠드, 다양한 재생지를 활용한 다이어리 등이다. 특히나 완전한 재활용을 위해 판매하는 제품은 전부 코팅과 접착제 없이 제작해 쓰면 쓸수록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레이프랩 1층에 위치한 친환경 카페 어피스오브





그레이프랩 김민양 대표

###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

그레이프랩을 이끌고 있는 김민양 대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카카오톡이다. 김 대표는 우리가 흔히 쓰는 SNS,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서비스를 개발했다. 개발 과정에서 김 대표는 창작자들과 함께 수익을 올리며 기업과 개인이 공생하는 경험을 했다. 덕분에 '기업은 개인의 이익을 착취하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눈뜨며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영국 유학 시절 탄생한 것이 현재 그레이프랩의 노트북 스탠드다. 접지 방식을 활용해 가벼우면서도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스탠드는 두 종류다. 기본형인 g.플로우는 45g의 무게로 5kg의 중량을 버티는 기특한 제품이다. g.플로우 스톤은 기존 g.플로우가 수분에 취약한 점을 보완해 젖지 않는 종이, 돌 종이를 활용해 제작한 제품이다. g.스탠드와 미니 스탠드는 더 다양한 제품을 세울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제품들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주목받고 있는 상품이다. "이전까지 국내 고객은 이 제품을 보며 '종이가 왜 이렇게 비싸?'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어요. 그래서 해외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자 합니다." 가장 가까운 행사로는 '국제도서전' 참가를 기획 중이다. 이곳에서 많은 이에게 종이로 만든 각종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레이프랩이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의 존재다. 김민양 대표는 영국 유학 시절부터 저개발 국가 출신 여성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왔다.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장애인들과 만날 수 있는 복지관에서의 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일손이 필요해지자 봉사 활동을 하던 복지관의 발달장애인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서 소셜벤처로의 첫발을 뗐다. 현재는 6명의 발달장애인이 정규직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고 있고, 5명은 아티스트로 계약을 맺어 제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나누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 제품은 기계로 만들지 못해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오히려 기계가 아닌 손으로만 접을 수 있어요"라고 설명하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장애 직원들이 처음에는 발달장애인을 낯설어하지만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처럼 서로 간 벽을 허물고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길이었고, 지금도 어려운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속 가능한 사회란 이런 소외계층 없이 하나 되는 사회라고 믿고 있다.

###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기업을 목표로

그레이프랩은 앞으로도 종이를 이용해 생활 속 물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김 대표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라이프스타일이 재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만 약 40가지에 이른다. 제품화 과정에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이런 노력에서 김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의 진심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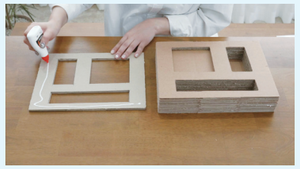
요즘 관심사는 종이 가구다. 그레이프랩의 1층 카페 어피스오브 한쪽 벽면에는 접지 방식으로 만든 종이 선반에 각종 책이 놓여 있다. 종이임을 알아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또 가구답게 놓인 모습에서 이들의 미래가 엿보였다. 우리의 소비가 좀 더 가치 있게, 지속 가능하게 바뀔 가능성도 함께. Ⓚ

# 재활용지로 만드는 사무용품

## 택배박스 수납함

❶ 택배 박스의 넓은 면 20장 잘라서 준비합니다.

❷ 바닥면이 될 박스 2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각들 뒷면들에 수납 공간이 될 위치와 깊이를 생각해 재단할 위치를 표시합니다.



❸ 박스는 칼을 이용해 그려둔 도안대로 자르고, 바닥면 2장을 맨 아래에 두고 본드를 이용해 한겹 한겹 붙여 쌓으면 나만의 수납함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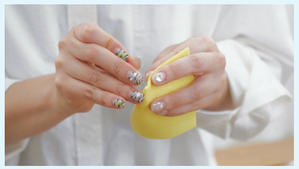
## 시리얼 박스 파일꽂이

❶ 시리얼 박스의 넓은 면 위에 펜을 이용해 자를 선을 그린 뒤 불필요한 부분은 가위로 자릅니다.

❷ 파일꽂이 모양으로 자른 시리얼 박스 크기에 맞춰 시트지를 재단한 후 박스 전체에 감싸듯 붙여 주세요.

❸ 앞면에는 예쁜 포장지와 네임택 스티커를 붙이면 파일꽂이 완성됩니다.

## 계란판 반짇고리



❶ 뚜껑 크기에 맞게 자른 정사각형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 안에 솜을 채우고 꿰매 마감한 뒤 계란판 뚜껑 안쪽에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

❷ 계란판 한쪽 칸에 동그란 양모볼도 글루건으로 고정해 핀봉을 만듭니다.

❸ 뚜껑을 덮어 계란판 윗면을 스티커로 꾸미고, 단추, 클립 등 바느질 소품으로 계란함을 채우면 귀여운 반짇고리가 완성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재활용 종이를 활용해 수납함, 파일꽂이, 반짇고리 등 사무용품을 만드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관통 간이 테이블

그림이나 포스터 등을 보관하는 지관통을 활용해 초간단 간이 테이블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테이블의 상판이 되어줄 쟁반을 아래 두고 글루건을 이용해 지관통을 원형으로 붙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원통 기둥이 되도록 붙여나갑니다. 기둥이 만들어지면 윗부분을 쟁반 바닥과 글루건으로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협탁이나 티테이블로 두루두루 활용 가능한 나만의 간이 테이블이 완성됩니다.

# 오늘은 스승의 날!
#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대전탄방중학교 & 충남고등학교 & 대전문정초등학교

빛이 점점 바래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뜻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기념일. '스승의 날'도 그중 하나입니다. 학교 안팎의 여러 요인으로 우리는 예전처럼 이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마음'에 새기는 일까지 드물어져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의 커피트럭은 더욱 특별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전탄방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대전문정초등학교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선생님들의 미소가 오월의 햇살처럼 눈부십니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 '자식 같은' 선생님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내리사랑'이라는 우리말이 있다. 손아랫사람에 대한 손윗사람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다. 오늘의 커피트럭은 그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손주 같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기 위해 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한 어른이, '자식 같은'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응모 사연을 보내면서 성사된 일이기 때문이다. 대전탄방중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 중인 신창열 회원이 그 주인공이다. 아래로 흘러가는 그의 깊은 사랑이,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스승의 날에 고귀한 가치를 불어넣는다.

"부산대학교에서 교련 교관으로 재직하던 1981년 공제회와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1989년 교련 과목이 없어지면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고, 중간에 대전으로 옮겨와 한밭대학교에서 퇴직했습니다. 은퇴 직후엔 6년간 세계여행을 다녔어요.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을 다 가보고 싶었거든요. 80여 곳을 다녔을 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했죠."

신창열 회원

대전탄방중학교 백은희 교장

그 고민의 결과로 시작한 일이 '배움터 지킴이'다.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모집 공고를 보고 선뜻 지원했다. 옛 생각이 많이 났다. 지금은 멋진 청년이 된 그의 손자가 대전탄방중학교에 다녔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폭력에 노출됐다. 그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나서고 싶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창열 회원은 이 학교의 5층 건물 두 동을 하루에 10회 이상 순찰한다. 힘들지만 보람이 크다. '내 손자'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매일 수시로 순찰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노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자식 같은' 선생님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들은 이 학교 교직원들만이 아니다. 대전탄방중학교 바로 옆에는 충남고등학교가, 건너편에는 대전문정초등학교가 있다. 각자의 학교에서 애쓰는 선생님들이 모두 안녕하기를 그는 매일 오며 가며 소망한다. 마음속 응원이 현실이 되어 여간 기쁘지 않다.

### 가장 좋은 계절에 만나는 가장 따뜻한 '쉼표'

학교 밖 가로수들이 신록으로 옷을 갈아입은 5월 15일 오후 1시 30분, 탄방중학교 체육관동 1층 주차장. 일찌감치 도착한 커피트럭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빛을 머금고 있다. 선생님들에게 건넬 카네이션을 함께 싣고 왔기 때문이다. 빛 고운 카네이션과 맛 좋은 음료, 알차게 구성된 「The-K 매거진」까지…. 빈손으로 달려온 선생님들이 한 아름 선물을 안고 각자의 교실로 되돌아간다. 세 학교의 선생님들은 평소 대화 나눌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던 이들이 커피트럭을 매개로 서로 따뜻이 인사를 나눈다. 교육공동체이자 마을공동체임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다.

"스승의 날을 내세우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기에 커피트럭이 온다는 걸 알고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고 응모 사연까지 보내신 배움터 선생님도, 그 마음을 대신 전하기 위해 커피트럭을 몰고 와준 한국교직원공제회 여러분도 정말 고맙습니다. 커피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우리도 스콘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대전탄방중학교 백은희 교장의 말이다. 커피트럭이 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는 대전문정초등학교와 충남고등학교에 직접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이런 답변이 왔다. "초청해 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커피트럭을 타고 따뜻한 마음들이 쉼 없이 오간다.

박민서·김도연·홍임정·권욱·김찬영 선생님은 대전탄방중학교로 실습 나온 교생들이다. 오늘로 실습 3주째. 처음 나와보는 학교 현장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을 다섯 선생님에게 커피트럭은 최고의 위로이자 응원이다. "너무 행복합니다!" 김찬영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치자 나머지 네 명의 선생님이 공감의 웃음을 동시에 터뜨린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교직원들을 대신해 여러 잔의 음료를 캐리어에 담아가는 사람들, 곧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교사를 대신해 줄을 양보하는 사람들, 커피트럭을 보고 달려와 신기한 눈빛을 보내는 학생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다. "연예인이 된 기분이에요."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서 마시는 믹스커피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멋진 '쉼표'를 찍는다. Ⓚ

## Mini Interview

### 주인공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이해연 선생님** (대전탄방중학교 체육 교사)

SNS로만 접해본 커피트럭이 우리 학교에 오다니, 정말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음모 사연을 보내주신 선생님이 아버지뻘이라서 더 감동이에요. 그분의 따뜻함을 눈 밝게 알아보고, 기꺼이 달려와 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교사가 된 지 이제 2년째인 '새내기 선생'이에요. 체육 교사라 아이들과 몸으로 부대끼면서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인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인 듯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맞게 될 스승의 날마다 오늘을 떠올리며 웃을 것 같아요.

### 최고의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염동렬 선생님** (충남고등학교 수학 교사)

우리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 '오늘 옆 학교로 커피트럭이 온다'고 알려주셔서 기꺼이 왔어요. 레모네이드를 채 마시기도 전에 벌써 엔도르핀이 도는 기분이에요. 대전고등학교에서 충남고등학교로 온 지 이제 두 달 반이 지났어요. 선생님들도 따뜻하시고, 아이들도 예쁘고, 동네 분위기도 따스해요. 덕분에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겪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날이 좋지만, 오늘이 특히 더 좋네요. 교사 생활 11년 차인데, 교사들을 위한 커피트럭은 처음 경험해 봅니다. 뜻밖의 선물을 안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 쌍화차 한잔에 응원과 위로가 가득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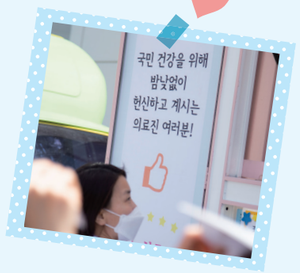
**장석봉 주무관** (대전문정초등학교 행정실)

2018년 6월 충남기계공고에서 정년퇴직한 뒤 이듬해부터 이곳 문정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가 제 업무예요. 학교 곳곳의 망가진 시설들을 수리하고, 화단을 비롯해 학교 환경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커피트럭을 이곳으로 불러준 분이 저처럼 퇴직했다가 다시 학교로 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연을 알고 나니, 왠지 더 애틋하고 고마웠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쌍화차를 마셨어요. 일교차가 심해져 건강을 해치기 딱 좋은 때인데, 좋은 성분 가득한 차 한잔을 하고 나니 몸이 아주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가 쏩니다! 「The-K 매거진」이 응원합니다!




## 전북대학교병원

1909년 조선 말기 자혜원으로 시작된 전북대학교병원의 역사는 전주시, 나아가 전라북도의 시간과 궤를 같이할 만큼 유구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북도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은 1,500여 명에 달하는 간호사의 요람이자 일터, 성장과 헌신의 공간으로도 명성이 높지요. 「The-K 매거진」이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리고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제1회 JBUH 나이팅게일 주간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글로는 형언하지 못할 고생을 한 간호사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축제 한마당에 시원한 커피 한잔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죠. 내내 흐리던 하늘이 파랗게 갠 그날, 「The-K 매거진」 팀은 헌신적이고 친절하며 뛰어난 실력으로 소문난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의 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 이경희 / 사진 이용기

### '제1회 JBUH 나이팅게일 주간행사' 현장을 찾다

지난 5월 10일 전북대학교병원 안마당은 유독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간호사들, 휠체어를 탄 환자들, 링거를 꽂은 환자를 부축하는 보호자들, 병원 의료진까지 모두가 소풍이라도 나온 듯 밝은 표정으로 간호사들이 건물 안팎에 준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에 한창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화사하게 꾸민 두 대의 커피트럭을 몰고 찾아간 곳은 5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전북대학교병원 '제1회 JBUH 나이팅게일 주간행사' 현장이다. 오늘 행사를 위해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 모두가 너나없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 이해숙 수간호사가 보내온 감동 어린 사연에 「The-K 매거진」 모두가 응원하는 마음을 안고 달려온 것이다. 취재진을 앞장서 맞이한 인물은 오늘의 주인공 이해숙 수간호사, 거기에 오늘 커피트럭 이벤트 진행을 돕기 위해 나온 10여 명의 간호사가 5월 같은 환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는다.

"평소 「The-K 매거진」을 열심히 보는데 이번 나이팅게일 주간행사를 준비하는 와중에 커피트럭 이벤트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커피를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돼 뜻밖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해숙 수간호사는 이번 행사가 간호사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의료 위기 상황에서 전북대학교병원 1,500여 명의 간호사가 전북 지역을 대표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국가 지정 음압격리병상, 고위험 환자 관리 병상 등 늘어나는 병상에 맞춰 간호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 전인 간호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 똘똘 뭉쳐 이겨낸 코로나19, 보람으로 돌아오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전담한 수간호사로서 초기 레벨D 보호복을 착용한 채 일을 해야 했고, 보호자들이 없다 보니 환자 식사 보조부터 대소변 기저귀 교환, 퇴원 시점에선 전신 목욕과 물품 소독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염병 초기엔 코로나19 임산부와 신생아를 받는 병동이 없어 격리병동에 입원 후 수술실에서 분만을 하고 저희가 신생아와 산모를 모두 케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미처 수술방에 옮기지도 못했는데 병실 침대에서 분만을 해 간호사들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은 적도 있어요."

이해숙 수간호사는 집에도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의료진과 직원들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오늘 커피트럭은 그간의 고생에 대한 응원이자 동료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전 11시 30분, 본격적인 커피트럭 행사도 시작됐다. 오늘 찾아온 커피트럭은 총 2대. 한 대는 3교대 근무로 나오기 힘든

유희철 병원장과 이해숙 수간호사

간호사들을 위해 미리 전화 주문을 받고 커피와 음료를 제조하는 트럭이고, 다른 한 대는 직접 커피트럭으로 찾아와 커피와 음료를 주문하는 의료진을 위한 것이다. 쉼 없이 오가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줄 선 직원 사이에서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유독 셀카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 행사 진행 간호사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한쪽에서는 간호부에서 마련한 버스킹 노래 가락과 박수 소리가 함께 날아드니 지난 3년간 지난하게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 전북도민의 가장 믿음직한 건강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많이 몰린 시간을 살짝 피해 등장한 유희철 병원장도 커피트럭 앞에 모여선 간호사와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다.

"간호의 참뜻을 기리는 나이팅게일 주간행사 기간에 교직원공제회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무에 시달려 온 간호사와 직원들이 커피 한잔을 통해 즐거운 담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하네요."

2017년에는 호남권역 최초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개소하고, 지난해에는 지역 최초,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감염관리센터를 신속하게 개원했으며, 감염 환자 원스톱 진료의 표준을 만드는 등 탁월한 감염 관리 능력으로 지역의

김정희 간호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이 애정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김정희 간호부장 역시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다. "간호사나 의료진, 병원 직원들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업무량과 엄격한 방역 수칙 속에서 환자를 치료하느라 모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만큼은 모두가 햇볕도 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길 바랐어요. 저희 업무 특성상 타 부서 선생님들께 업무 재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커피 한잔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합니다."

간호부 전체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이만큼만 해주길 바란다는 김정희 간호부장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긍지가 찬란히 빛난다.

준비한 커피 1,500잔이 일찌감치 동나고, 추가 주문이 계속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호응으로 오늘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전북대학교병원 식구들. 사람들이 몰려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고 빈틈없이 일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보니 새삼 전북대학교병원이 왜 지역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지 알 것 같다.

"'도민과 동행한 따뜻한 의료 100년'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갈 알찬 의료 미래 100년'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시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Mini Interview

### 똘똘 뭉쳐 힘든 시간을 이겨낸 후배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민희** 특수간호과장·**양혜라** 병동간호2과장

커피트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연을 보내신 이해숙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살림꾼으로 구석구석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솔선수범하는 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간호사 모두가 똘똘 뭉쳐 힘든 시간을 이겨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우리 병원은 전북도민들에게 "이곳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확고한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도 저희 간호사들이 앞장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늘 고생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오주은** 진료비심사과 사원

나이팅게일 행사 와중에 커피트럭이 온다는 소식을 그룹웨어를 통해 들었어요. 저는 임상에서 일하다 심사과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는데 임상에서도, 심사과에서도 업무를 하다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의 엄청난 노고가 보이거든요. 또 저희 일 자체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늘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서 이렇게 커피까지 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늘 보듬어 주시는 이해숙 선생님을 비롯한 간호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 친절도 실력도 최고인 전북대학교병원 간호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김민규** 전산정보과 사원

그룹웨어로 간호사 선생님들의 행사와 커피트럭 이벤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부럽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워낙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행사도 잘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특히 이해숙 선생님은 제가 신입 시절부터 저를 챙겨주셨고, 또 우리 병원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전산정보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 가족과 소통하는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한눈에 모아보는 The-K 크리에이터 테마별 인기 콘텐츠 모음집

The-K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지역·연령·소속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19명(*기사 7명, 영상 12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공제회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미있고 생생한 교육·업무 현장, 다양한 공제회 서비스·혜택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020년 3월부터 운영해 온 The-K 크리에이터는, 현재 새롭게 구성된 2기 회원님들이 작년 4월부터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의 활동내역과 성과들을 되돌아보고 콘텐츠 제작 교육을 함께 수강하는 등 열정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The-K 크리에이터 2기 회원님들이 직접 제작해주신 다채로운 콘텐츠 중 특히 더 알찬 정보가 담겨 인기 있었던 기사와 영상 콘텐츠들을 한데 모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 교육 현장 이야기부터 회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제회의 다양한 혜택·서비스, 알아두면 유익한 일상 콘텐츠까지! 교육·업무 현장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고,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The-K 크리에이터 회원들의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 전문적이고 생생한 교육 현장 이야기

### 수업할 때 필요한 에듀테크 도구 모음.zip

- The-K 크리에이터 박준열 선생님

수업할 때 필요한 에듀테크 도구들! 여기저기 흩어져있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현직 선생님이 한곳에 모아 모아 직접 만든 티끌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 학술연구를 시작하는 교직원을 위한 웹사이트 소개

- The-K 크리에이터 김민철 선생님

광범위한 연구물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학술 연구를 시작하시는 교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학술 연구를 위한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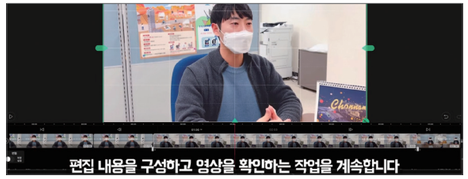
###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통합교육

- The-K 크리에이터 우숙정 선생님

모든 아이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는 통합교육, 자세히 알아볼까요?

### 1인 영상제작 선생님을 위한 영상편집 방법

- The-K 크리에이터 김광운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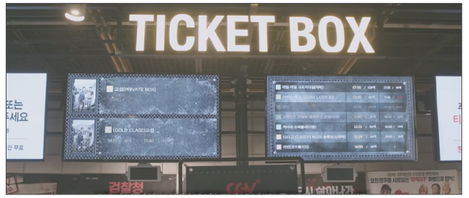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 영상을 참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편에 소개했던 마이크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모습까지!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드려요!



## 혜택과 정보가 가득한 공제회 이야기

### 알아두면 쓸모가 아주 많은 교직원공제회 혜택

- The-K 크리에이터 조은경 선생님




모르면 손해인 다채로운 공제회 혜택! 수많은 혜택 중 문화 활동에 초점을 맞춰보았는데요! 회원은 물론, 가족까지 국내외 문화 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공제회와 손잡고 건강하게! 제휴병원 알아보기

- The-K 크리에이터 안소연 선생님

공제회 제휴병원 현황부터 어떠케어 어플 이용 방법까지! 회원님들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한 공제회 제휴병원과 건강검진 통합서비스를 알려드려요!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전환방법 꼼꼼 정리

- The-K 크리에이터 장원호 선생님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특장점과 증·감좌 방법, 퇴직급여금 계산법, 퇴직생활급여 가입방법 등 회원님들께서 궁금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교직원공제회 직영호텔 제주 라마다 호텔 vlog

- The-K 크리에이터 강은영 선생님

선물 같은 휴식이 가능한 제주도! 공제회 제휴 호텔 혜택으로 더욱더 풍성한 휴식 즐기기! 공제회원이 직접 소개하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함께 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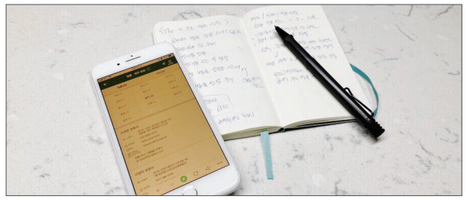
### 공제회와 함께 누리는 호텔, 영화, 아쿠아리움

- The-K 크리에이터 김희원 선생님

공제회원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생활! 호텔, 영화를 넘어 아쿠아리움까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 The-K 무료 법률상담 알차게 이용하는 법

- The-K 크리에이터 정다은 선생님



공제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혜택 중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실제 이용 후기를 생생하게 담아주셨습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일상 이야기

### 예술의 전당, 무료 전시로 문화생활 즐기기

- The-K 크리에이터 박정연 선생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예술의 전당! 무료로 전시를 즐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무료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과 여러 부대시설까지 소개합니다.

### 공제회 제휴 혜택과 함께하는 원주 기차여행

- The-K 크리에이터 안유빈 선생님

공제회에서 기차 할인 받는 방법부터 강원도 원주 여행 브이로그까지! 정보면 정보, 일상이면 일상! 꽉 채운 이번 영상 함께 만나볼까요?!

### 내 손안의 건강비서! 건강 어플리케이션 소개

- The-K 크리에이터 선민준 선생님

내 손안의 건강비서로 든든하게 내 몸을 챙겨보세요
운동부터 식단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튼튼 UP
건강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립니다.

### 북&JOY 당첨후기 및 다독왕 되는 꿀팁

- The-K 크리에이터 임하정 선생님

무료 전자도서관부터 매거진 무료 구독 서비스, 공제회 북&JOY 이벤트까지!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교직원 가족들의 마음의 양식이 가득해지길 응원합니다!

**TIP**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유튜브에 The-K 크리에이터 를 검색해보세요!

SCAN

The-K 크리에이터들의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들은 교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글과 영상으로 매월 찾아오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와 혜택이 가득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공제회 공식 채널에서 만나보시고, 멋진 응원의 한 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교육가족의 다락방(多樂房)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The-K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보고 교육 가족이 전하는 메시지

The-K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콘텐츠들을 모아 전해준 기사가 참 유익했습니다. 공제회 회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위한 노력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특히 공제회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실감 나게 전해주셔서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The-K 크리에이터 분들이 전해주신 꿀팁을 참고해서 저도 필요할 때마다 공제회 회원이 누릴 수 있는 공연·영화·숙박·건강검진·마음쉼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겠어요^^

**민*기 회원님** 양도초등학교

The-K 크리에이터 콘텐츠들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The-K 직영호텔을 말로만 들어봤지 어디에 있는지 등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어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분들의 멋진 후기를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The-K 직영호텔 예약을 했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는 신규 숙박시설 제휴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말에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좋은 숙박, 여행 정보를 준 The-K 크리에이터분들 고마워요!

**고*현 회원님** 대전선화초등학교

약방의 감초처럼 The-K 매거진과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선생님들의 활약을 현장에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소식까지 전해주시니 전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업무용 꿀템도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정보도 쏙쏙 골라서 소개해주셔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자주 부탁드립니다.

**정*희 회원님** 웅양중학교

공제회 회원 혜택이나 복지제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The-K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 유익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체험한 The K 제휴호텔 영상 보면서 가족들과 꼭 가보리라 다짐하고 영화관 할인 혜택 콘텐츠도 보면서 이 좋은 혜택을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알찬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나 회원님** 서울로봇고등학교

The-K 크리에이터 분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제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내는 글과 영상이었네요! 업무만 하기에도 바쁘실텐데 선생님들의 진취적인 참여와 도전 정신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으쌰으쌰 기운을 내서 움직여 보려구요!

**박*안 회원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교실에서 활용하면 좋을 다양한 아이템들을 보고 구입해서 써보기도 하고, 교육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매번 감사드립니다.

**반*영 회원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The-K 매거진을 기다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인생 이모작과 여러 크리에이터님들의 작품을 편하게 시청하며 지내는지라 The-K 매거진을 더욱 빛내 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공제회 유튜브 동영상이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제회 주요 소식이나 장기저축금여, 퇴직을 앞둔 분들을 위한 특별회원에 대한 정보 등을 동영상으로 제공해주어 쉽게 유익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콘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회원님** 영주대영중학교

보험사업부 심의필 제2023-22호(2023.05.26.)

꼭 필요한 보장인 암, 뇌/심혈관질환, 치매를 하나의 상품으로 원하는 대로 조립하는 **DIY형 보험**

# 3대질병(암, 뇌/심혈관질환)+치매까지 '3대플러스치매공제'

교육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유일 교직원 맞춤형 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입니다. 지난 4월호, 5월호에서는 나에게 딱 맞고 꼭 필요한 보험을 똑똑하게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 및 보험용어 상식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 3대 사망원인인 3대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기를 강조 드렸습니다. 이렇듯 꼭 필요한 보장인 3대질병은 물론 치매·간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교직원공제회에서 준비한 보험 신상품 '3대플러스치매공제' 출시 소식을 회원님들께 전해드립니다. Ⓚ

## 한국교직원공제회 비갱신형 DIY종합건강보험 신규 출시!

### 1. 핵심보장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실속 종합보장!

- 주급여는 재해사망으로 가볍게!
- 36개 특약 중 꼭 필요한 특약(기본특약+선택특약)만 골라 담는 DIY식 구성

### 2. 처음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비갱신)

- 주급여는 물론 진단/치료/입원 특약까지 모두 비갱신형 가입 가능 (최대 100세 만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도 보장기간동안 계속 보장

### 3. 감액기간 삭제! 보장범위는 강화!

- 일반암(소액암 제외) 10대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1년 내 50% 지급조건 삭제
- 변화하는 암치료환경을 고려한 맞춤보장 및 간병인 사용 입원 특약 신설

### 암 플랜 설계시

- 폭넓은 일반암 진단비 및 2차암 진단비, 검사, 진단, 수술, 입원, 통원, 항암치료까지 **암통합 솔루션** 제공!
- 최신 암치료기술까지 비갱신형으로 보장하는 **신규 특약** 탑재
  ※ 암다빈치로봇수술, 표적항암약물, 카티항암약물, 항암양성자 방사선, 항암세기조절방사선 등

### 뇌/심혈관 플랜 설계시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기본,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까지 보장 확대!**
- 검사, 진단, 수술, 입원, 치료까지! **종합 솔루션 제공!**

### 치매·간병 플랜 설계시

- 치매는 기본, **장기요양상태까지 보장**
  - 경증장기요양상태부터 중증장기요양상태까지
- 최대 월 100만원의 **간병자금 평생 지급(3년 보증)**
  (중증치매 또는 중증장기요양상태 진단시부터)
-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 등 다양한 **신규 특약** 제공

※ 위 보장내용은 모두 해당 특약 가입시에 한하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본문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자, 고령자라면?** 유병자, 고령자도 3·2·5 간편심사기준만 통과하면 **간편3대플러스치매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시더라도 **간편3대플러스치매공제**로, 100세 시대에 걱정되는 노후를 지금부터 든든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상품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는 '3대플러스치매공제', '간편3대플러스치매공제' 외에도 다양한 교육가족 맞춤형 보험 상품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하오니 공제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고,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직1Life 우리의 온리원은 교직원입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이렇게 만나세요!

홈페이지 '재정전문위원 찾기' 거주지역과 가까운 최고의 보험 전문위원에게 맞춤형 상품을 직접 추천받을 수 있어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품별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간편하게 '전화 문의하기' **보험가입 상담 1577-3993**



#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급여율 상향 조정 안내

2023년 6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급여율이 세전 연복리 기준 3.80%에서 4.60%로, 0.80%P 인상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1971년 6월 첫 시행되어 50년 넘게 회원들에게 사랑받아온 공제회 대표 저축 제도로, 1구좌 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150만원(2,500구좌)까지 10구좌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시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되어 공제회 회원으로서 대여, 보험 및 다양한 문화·복지·생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직후부터 퇴직 시까지 원하는 납입금액으로 장기간 불입할 수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해서 '스노우볼' 효과라 불리는 연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든든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 약 76만여 명의 회원이 장기저축급여 제도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평생 금융,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분할급여금이나 퇴직생활급여로 전환해 연금처럼 나눠 받으며 체계적으로 저축 금액을 관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장기저축급여 가입하고 제주도 가자!

### 장기저축급여 가입 이벤트, 7월 31일까지 응모
### 공제회원 2천 명에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3만 원 상당)
### 20명에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숙박권 증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신규 가입한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가입 이벤트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기간 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한 회원 중 2천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고구좌 가입 회원(1,000구좌 이상) 중 20명에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2박 3일 숙박권(2인 기준, 조식 포함)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2일이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6월 말 퇴직 예정 회원 퇴직급여금 청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3년 6월 말 정년·명예 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내려받아 직접 작성한 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시·도 지부 회원 상담 창구에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발생하지 않으며,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혹은 퇴직생활급여를 신청하면 특별회원으로 전환되어 공제회 회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1577-3400) 문의

## 퇴직급여금 청구, 편리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온라인 청구 이벤트, 6월 5일 ~ 7월 4일까지 응모

공제회는 2023년 6월 말 퇴직 예정인 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온라인 청구 이벤트를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한다. 공제회 홈페이지(PC·모바일)를 통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는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카페라떼 Tall)을 1인 2매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1일이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 공제회원 2천 5백 명에 전시회·박람회 관람권 증정

### 제1차 아트&JOY 행사, 6월 19일 ~ 28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제회원들의 풍요로운 문화예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시회·박람회 관람권을 증정하는 제1차 아트&JOY 행사를 진행한다. 6월 19부터 28까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전시회·박람회 5곳 중 원하는 1곳을 선택하여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2천 5백 명의 회원에게 전시회·박람회 관람권(1인 2매)을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7월 3일이고, 각 전시별 전시기간 종료일 또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장소 등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사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도서/여가 > 아트&JOY 참조

## 국내 서점 베스트셀러와 이달의 테마 도서를 선물합니다

### 북&JOY 특별 감사 이벤트, 마케팅 동의 회원 9천 7백 명에게 희망 도서 증정

공제회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 도서를 선물하는 북&JOY 특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대표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 ▲스테디셀러 10종 ▲6월 테마 여행 분야 도서 10종으로 총 40종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 중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회원 9천 7백 명에게 희망 도서 1인 1권을 증정한다. 당첨 발표일은 6월 29일로, 당첨 회원에게는 응모 시 입력한 주소로 7월 중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사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도서/여가 > 북&JOY 참조

## The-K 은빛동행 시니어 건강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 공제회 특별회원 775명(동반 1인 포함) 초청

퇴직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특별회원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The-K 은빛동행' 오프라인 초청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건강 관련 강연회를 지역별로 총 3회 개최하여 특별회원 775명(동반인원 포함 1,550명)을 초대하는 이벤트로, 코로나 이후 3년 여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방식에서 탈피, 특별회원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세미나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 발표일은 6월 15일이다.(6월 26일-대전-오한진 교수, 6월 28일-대구-이덕철 교수, 6월 29일-서울-이호선 교수) 당첨되어 행사에 참석한 회원에게는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도 증정할 예정이다(본인 1인에 한함). 강연 주제 및 초청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도서/여가 > The-K 은빛동행 참조

## 내 삶의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 The-K 브랜드 캠페인 '내 삶의 명장면' 메이크오버 참가자 모집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The-K 브랜드 캠페인 '내 삶의 명장면'을 통해 메이크오버 참가자 모집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사진촬영 각 분야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 메이크오버(이미지 변신을 위한 단장)를 선사하는 내용으로, 일상에 지친 교직원들에게 삶의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영화 같은 순간을 선물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메이크오버를 신청하게 된 계기와 원하는 스타일을 적어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자 중 3명을 선정하여 메이크오버 기회를, 150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이며, 메이크오버 과정을 담은 영상은 9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간단한 보험 퀴즈 풀고 디저트 세트 받고

### 교직원라이프 보험 신상품 출시 이벤트 6월 13일 ~ 25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가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보험 신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출시된 '3대플러스치매공제'와 '간편 3대플러스치매공제'에 대한 퀴즈를 푸는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정된 2천 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오늘도 달콤하게' 세트)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30일이고, 보험 신상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p.72 The-K Family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시작일 이후 공제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 The-K행복서비스 > 기타이벤트 참조

##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2일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상(像)을 정립하고,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교육상이다. 이번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의 대상은 강정미 하단중학교 수석교사가 받았으며, 이 외에도 총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홍조·녹조·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등 정부 훈·포장과 상패가 수여됐으며,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천만 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천만 원이 각각 주어졌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발전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교직원공제회는 앞으로도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수상 내역은 The-K 매거진 6월호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공적 소개' 및 각 인터뷰 기사 참고

## 제11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권역별 시상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의 '제11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이 5월 9일 영남권 시상식을 시작으로 24일 호남권, 6월 1일 수도권, 8일 중부권 순으로 개최된다.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상은 S2B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2년도 S2B 이용실적, 전년대비 증감률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세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제11회 S2B 청렴계약 우수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개, 교육지원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외 15개, 각급학교 부문은 대전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외 33개로, 총 5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한편, 지정정보처리장치 S2B의 이용가능 금액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S2B 이용기관의 계약업무 처리가 보다 편리해졌다.

##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 상임감사 반부패·청렴 서약식 참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여성위원회 상임감사 워크숍'에 참석해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업무 구축을 위한 서약에 동참했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 금지 ▲외부의 부당한 직무 간섭 배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공·사생활 솔선수범 등으로, 이번 서약식은 공공기관 여성감사인들이 한데 모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재수 상임감사(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감사로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약식이 다시 한 번 감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더욱 청렴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The-K 출자회사 6월 소식

## The-K호텔서울

### 도심에서 즐기는 다양한 Summer 패키지

자연 친화적인 호텔로 사랑받는 The-K호텔서울이 여름을 맞아 공제회원들이 도심에서 시원한 호캉스와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Summer 패키지를 선보인다. 우선, 가족들과 함께 알차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공제회원 객실 특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은 9만9천 원, 주말은 11만9천 원, 연휴가 있는 성수기에는 1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제회원들이 더욱 분위기 있는 호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와인&로맨스 패키지**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디럭스 트윈 1박과 함께 와인 2병을 제공하는 2인 전용 패키지는 회원 특별가로 주중 12만1천 원, 주말 13만9천 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연휴가 있는 성수기에는 15만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주중: 일~목, 주말: 금~토, 성수기: 6월 2~5일)

또한 **객실 조식 패키지**는 디럭스 트윈 1박과 우첼로 모닝 뷔페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제회원 할인가로 주중 14만8천 원, 주말 16만8천 원, 연휴가 있는 성수기에는 17만9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우첼로 세미 뷔페(디너) 패키지**는 일반실 1박과 60여 가지의 다채로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우첼로 디너 세미뷔페 2인 구성으로, 주중(수~목, 일) 17만1천 원, 주말(금~토) 19만1천 원, 연휴가 있는 성수기(6월 2~5일)에는 20만2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앞선 두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우첼로와 베이커리 카페 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 피트니스클럽 이용 시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여유로운 휴가를 원하는 가족, 연인들을 위하여 호텔 내 넓은 정원 '우첼로 가든'에서 식사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우첼로가든 바비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첼로가든 바비큐는 고객이 바비큐 그릴을 이용하여 직접 구워 먹는 셀프 바비큐로 운영하며, 양갈비 1kg 12만 원, LA갈비 600g 10만 원, 소고기 모둠·안심·등심·갈빗살·부챗살 구이가 600g 기준 9만 원, 돼지고기 모둠·삼겹살·목살·갈매기살 구이가 600g 기준 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페셜 메뉴로는 소시지·왕새우구이를 2만5천 원에 즐길 수 있으며, 식사를 이용하면 샐러드바를 무료로 제공한다. 바비큐 운영 시간은 매주 목·금요일 저녁 18시~21시까지, 토·일요일은 점심 12시~15시까지, 저녁 18시~21시까지다. 모든 식사는 1일 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공제회원은 식음료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서초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 등 도심 속 숲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The-K호텔서울에서 다양한 Summer 패키지로 초여름 자연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71-8100(The-K호텔서울)

## The-K호텔경주

### 성큼 다가온 여름, Early Summer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일찍 찾아온 여름을 맞아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Early Summer 패키지**를 진행한다.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구성이며 이용금액은 회원 할인가로 주중 12만6천 원부터 이용가능하다.(요일별 상이) 또한 호텔 커피숍에서는 눈꽃빙수도 판매하고 있어 이른 더위와 피로를 시원하게 날려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디너뷔페**를 성인 4만 원, 어린이 2만5천 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투숙 고객은 디너뷔페 사전 예약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일상에서 쌓인 피로는 경주시 최우수 사우나로 지정된 The-K호텔경주의 **천연온천 사우나**에서 풀어보는 것도 좋다. The-K호텔경주 온천은 천연나트륨, 염소, 유황성분이 함유된 수소이온 농도 9.12pH의 천연 알칼리성으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100% 순수온천수가 피부 혈행 개선, 류머티즘, 신경통, 창상요통, 피부병 및 외상 후유증, 피부미용 등에 효험이 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와 소나무 숲속에 위치하여 피톤치드가 풍부한 노천온천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054-745-8100(The-K호텔경주)

## The-K지리산가족호텔

### The-K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 떠나는 先(선) 여름여행 이벤트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천상의 화원, 구례 수목원에는 매년 6월~7월 초가 되면 10만 송이 수국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다운 꽃물결을 이룬다. 특히 1km 구간의 테마수국길은 청초한 푸른빛의 산수국이 비단길같은 자태를 뽐내며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어 최고의 산책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구례 수목원 곳곳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여름여행의 인생사진을 남기기에 최적이다. 이외에도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미꾸라지 잡기, 수국 비누 만들기, 한지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원들을 위한 6월 특별 이벤트로 **The-K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 떠나는 先(선) 여름여행 이벤트**를 준비했다. 구례 수목원 입구에서 인증사진 1장, 구례 수목원에서 先(선) 여름여행 느낌의 인증사진 1장, 총 2장을 찍어 호텔 공식 이메일(jirisan8100@naver.com)로 보내면 호텔 조식 1인 1회 이용권과 호텔 온천사우나 1인 1회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6월 투숙 고객에 한해 한 달간 진행하며, 인증사진은 체크인 및 체크아웃 날짜를 기준으로 객실 1실 당 1인, 개인 방문일 경우에 한하여 본인 사용 시에만 참여할 수 있다. The-K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 先(선) 여름여행을 떠나 청정지역인 구례 수목원에서 짙은 신록이 내 뿜는 피톤치드 향과 화사한 수국의 매력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폐베갯잇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호텔을 중심으로 제주 원도심의 문화공간을 알리고자 '66루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66루트'를 통해 제주의 예술 갤러리부터 역사·문화의 장소까지 다양한 곳을 제주호텔만의 색깔로 풀어낼 예정이며, 그 중 첫 번째 프로젝트로 **호텔의 폐베갯잇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코오롱스포츠 솟솟리버스제주와 협업으로 기획된 이번 체험은 지속가능한 가치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코오롱스포츠의 콘셉트 스토어인 솟솟리버스제주에서 참여할 수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공하는 폐베갯잇의 모양을 살려 가방의 크기와 모양을 정하고 와펜과 단추 등의 부자재를 활용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맞춤 가방을 만들어 볼 수 있어 더욱 의미있다. 앞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도 진행하여 체험비용의 일부를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단체인 '세이브제주바다'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6월 3~4일, 7월 1~2일, 8월 12~13일에 프리미엄 빈티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호텔 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이색적 친환경 행사로, 팝업스토어에서 빈티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의 더 블루 뷔페 이용 시 맥주 또는 소프트 드링크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원데이 클래스 및 팝업스토어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호텔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4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810명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자연의 푸르름에 감사해하며 4월호에서는 '환경과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시립대 배형민 교수님, 숲 해설가 박양수 회원님, 창원 용남초 임성화 선생님 등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분이 환경을 위해 생각을 바꾸고 실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회원님이 「The-K 매거진」에서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 이 사회에 희망을 갖고 변화를 위한 실천의 계기로 삼고 계시다는 말씀에 마음속 깊이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들께 좋은 기운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담는 The-K 매거진이 되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The-K 매거진」의 매월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퇴직자에게는 교육의 끈을 이어주는 「The-K 매거진」이 교육자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므로 소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교육 가족과의 소통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껴지며,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는 이벤트도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매월 연재되는 '마음쉼' 칼럼을 통해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베푸는 의미 있는 삶, 즐거움을 자주 느끼며 긍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김*자 회원** 前 대구감천초등학교

정신없이 3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힐링 잡지를 접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고민 상담소'에서 중년기에서 겪는 불안감에 대한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 내가 소속한 곳에서 현명하게 살기, 삶은 소유가 아닌 순간순간 있음이라는 것. 따라서 배우고 비우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콕콕 머릿속에 새기게 됩니다. 행동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보 창고 「The-K 매거진」 선물 잡지를 만드신 편집실의 모든 분들,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김*안 회원** 동백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시 숨을 돌리며 충전할 때 「The-K 매거진」과 함께하고는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소식을 접하며 공제회의 장점과 안정성 등에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공제회와 남은 교직 생활을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교직원 모두를 아우르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주시는 점도 많은 분이 계속해서 공제회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바쁜 일상에 행복을 주는 잡지로 늘 함께해 주세요!

**김*아 회원** 수원금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매월 1일, 그날이 비록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명절이나 공휴일일지라도 「The-K 매거진」 앱은 자정이 되면 새 달의 기사가 열립니다. 잠이 몰려도 자지 않고 그 기사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중에서도 제 최애 칼럼은 '고민 상담소'입니다.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 나를 달래주는 온열 팩과도 같은 글들에 그만 탄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매월 이런 소확행이 모여 정말 제가 삶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런 글귀들이 저를 잡아 일으켜 주는 손이 될 것 같아요. 삶의 지혜는 사람의 입뿐만이 아니라 책 속의 글에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또 느껴봅니다. 이번 4월호에서 특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글귀로 마칠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나의 약점을 기회로 활용한다!

**서*인 회원** 안산광덕초등학교

공제회 창립 52주년을 축하합니다. 교육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52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고로움에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제가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큰 요소였습니다. 가르치는 보람도 컸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한국교직원공제회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활력소가 되었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를 보냅니다.

**이*환 회원** 예문여자고등학교

4월호 '꿈 너머 꿈' 코너를 통해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임성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경교육, 참 중요하지' 생각은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에 중학교 교사인 저는 늘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저도 그런 멋진 학급 경영, 「The-K 매거진」을 통해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권*연 회원** 달천중학교

이번 4월호에서는 'The-K Focus 1' 코너의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2022년 결산 편'이 단연 눈에 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교직원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서, 특히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에 급여의 많은 부분을 장기간 투입하고 있었던 바이다. 당연히 장기저축급여의 높은 급여율(수익률)을 비롯한 공제회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진정성과 함께, 공제회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4월호에서 구체적 결과와 수치로 제시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영 성과와 자산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은, 그 공신력을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공제회의 '자산 규모 및 자산 현황'과 더불어 '준비금 현황과 적립률' 등이었다. 이는 평소에 공제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영 성과 관련 데이터와 정보의 영역인데, 「The-K 매거진」에 자신 있게 제시된 여러 성과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신감이 더욱 돋보인다.

**임*수 회원** 광혜원고등학교

「The-K 매거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잡지인 것 같아요. 과거 국민학교시절의 사진과 이야기, 현재를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회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미래인 은퇴자들의 활약을 보게 되니깐요. 환경에 관한 기사가 많은 편인데 ESG를 잘 실천하는 기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 4월호에 소개된 '트리플래닛'기업 이야기를 통해 저도 '교실 숲 환경교육'을 신청해 보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잡지이면서도 환경잡지이고, 경제잡지이면서도 건강잡지인 듯한 멀티플 잡지이기도 하고요. 다음 호에는 어떤 기사들로 우리들을 설레게 해 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면서 기다려집니다.

**김*정 회원** 서울상봉초등학교

교단에 서게 된 후 초반에는 학생들에게 위로를 받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많은 힘을 얻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답을 찾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공감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온라인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The-K 매거진」입니다. 여러 교양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전국 곳곳에 계신 선생님들의 평범하면서도 특색 있는 삶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직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월 반가우면서도 따뜻한 소식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류*연 회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The-K 매거진」은 정말 알찹니다. 그중에서도 늘 '우리 어렸을 적에'를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릴 적에 가난하고 교육환경이 더 열악했지만 친구들과 새까만 얼굴을 마주 보며 웃음 지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뱅뱅이, 시소, 늑목, 정글짐 등등 이제는 시골 인구 감소로 모교는 폐교가 되어 가끔 고향에 갈 때 들러보면 건설 현장 사무실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씁쓸해지고 내 추억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시대 학생들에게 맞게 우리 교원들은 먼 훗날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추억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 추억의 페이지를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좋은 사진 자료를 소장해 우리 회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선배 선생님, 김완기 작가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류*근 회원** 부산 명원초등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재무건전성 확보로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적 수익 창출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공제회 주요 소식과 회원 수, 복지 현황을 확인하니 공제회와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The-K 매거진」이 좋은 소식 전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 창립 52주년 기념사에 관한 기사를 접하니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긴 시간 동안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 성장을 해왔다는 말씀에 공제회 소속이라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The-K 매거진」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결산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빈 회원** 부산 연동초등학교

교직원공제회의 2022년 결산을 읽고 더욱 든든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회원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꾸준히 늘어 89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교직원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는 확실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 수가 많으니 현직에 있을 때 가입하는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퇴직급여 가입자가 많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목돈을 맡겨 운용한다는 것은 퇴직자들이 공제회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산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준비금 적립률도 건전해 믿고 맡기는 데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각종 회원 복지 혜택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사해 주는 교직원공제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차*연 회원** 前 자운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글솜씨가 없어서 의견을 남겨볼까 많이 망설이다 「The-K 매거진」의 좋은 영향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어 감사 인사차 글을 남깁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메일로 알려주는 「The-K 매거진」 이벤트로 처음을 시작했어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답을 찾기 위해 글들을 찾다 보니 상식부터 문학까지 꽤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이 많아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고 읽어보게 되었어요. 무관심했던 장기저축급여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항상 좋은 이야기, 좋은 가르침 많이 들려주세요.

**이*정 회원** 광양칠성초등학교

매달 1일이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The-K 매거진」! 늘 충실하고 따뜻한 기사들이 마음을 채워주지만 특히 이번 4월호는 기후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배형민 교수님의 모습, 그리고 봄에 어울리는 나무와 나무를 심는 트리플래닛의 환경지킴이 활동을 보면서 '나도 인류와 세상을 위해 조그마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한 영향력이 야말로 「The-K 매거진」의 매력이 아닐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이*희 회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매달 새 단장하는 「The-K 매거진」은 늘 기대가 됩니다. 신문과는 또 다르게 홈페이지에 늘 예쁜 사진과 그림까지 보는 재미를 훨씬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달 여는 글에 '지구와 인류를 위한 선물, 나무' 글을 접하며 처음에는 사진이 예뻐서 클릭하게 되었지만 이달에 어떤 소식을 접할 수 있을지 먼저 소개 글을 보게 되니 일목요연하게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자연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인생 이모작' 코너에서 숲해설가 박양수 회원님의 기사를 접하며 숲에서 교감의 지혜와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부럽기도 하고, 자연이라는 큰 교실에서 나무와 숲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리 만족할 수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울러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은 회원** 군포고등학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창립 52주년이었다니!! 세월이 정말 빠름을 실감합니다. 언제나 살맛 나는 좋은 소식으로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 좋은 생각' 긍정적인 단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신 건축학자이며 큐레이터이신 배형민 교수님의 소개 내용은 더욱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축학자와 기후 위기극복! 뭔가 다른 분야일 것 같았는데… '기후미술관 : 우리 집의 생애'와 사물의 생애주기, 제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매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분야 간 경계를 지워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름다운 우리 지구를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먼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균 회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제가 요즘 우리 가족의 보험 상품을 알아보느라 바빴는데 마침 'The-K Family' 코너에 보험 선택 가이드가 있었네요! 신설된 코너인가요?! 덕분에 정보 얻어갑니다! 또 「The-K 매거진」에서 공제회의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건강한 집밥', 이번에는 비건 도시락이군요! 아내가 환경문제와 더불어 비건 라이프에도 관심이 있는데 꼭 해주고 싶은 요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처가 근처가 옥천인데 제목 그대로 정말 숨은 명소였네요! 다음에 처가에 방문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들려드릴게요.

**유*강 회원** 서울전곡초등학교

퇴직한 지 13년째 접어들고 있는 퇴직 교육자입니다, 퇴직 후 곧바로 '퇴직생활급여'에 예금을 예치했더니 공제회원 자격이 계속 주어져 매달 공제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다양한 읽을거리를 보는 것도 즐거울 뿐 아니라 OX 퀴즈나 공제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서 매달 초가 되면 기다려지는 「The-K 매거진」입니다. 특히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The-K 매거진」 전체를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기쁨을 덤으로 얻고 있습니다. 일흔 중반에 이런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퇴직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화 회원** 前 영주남부초등학교

이번 호를 읽으면서 미래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상혁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보면서 팬데믹 이후 '포스트 시대'에 대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사용하는 챗GPT 기사를 읽으면서 어릴 때 상상만 하던 인공지능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 사회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혹은 아이들이 배워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점점 고민이 깊어집니다. 「The-K 매거진」을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주 회원** 전주양현초등학교

이번 호 'The-K Focus 1'에서 공제회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요새 여러 저축은행과 금고들이 유동성 위기 혹은 뱅크런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 공제회는 정말 안전할까, 어느 정도 안전할까 등이 궁금했는데 상세하게 기사로 제공해 줘 궁금했던 점을 잘 알 수 있었고, 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새 비건 식단에 관심이 많아 마트에서도 비건 인증 식재료나 식품을 사 먹는데, 레시피까지 친절하게 제공된 건강한 집밥 기사를 보니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세 가지 메뉴 모두 맛있어 보여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만들어 먹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유용한 레시피 부탁합니다.

**김*선 회원** 서울새솔초등학교

「The-K 매거진」 앱을 통해 매일 즉석 당첨 이벤트 응모로 하루를 시작하고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나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등도 방문하며 다음 달을 기다립니다. 「The-K 매거진」 앱을 통해 잡지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직접 종이 냄새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의 소리 등 앱이 흉내 낼 수 없는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추억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특히 이번 4월호에 발표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산과 준비금 적립률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당기순이익의 수치를 보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임이 자랑스럽고, 안정된 투자와 장기저축급여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회원을 위한 복지와 각종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늘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정*곤 회원** 前 효양중학교

저는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를 즐겨 읽고 있습니다. 회원 대상으로 법률, 세무, 노무 무료 상담소가 우리 고장 광주에도 3월 28일부터 개설되었다니 정말 좋습니다. 지난해에 증여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해 세무법인 몇 군데를 찾아갔는데 어려운 세무 용어 사용과 세무사에 따라 약간씩 의견 차이가 있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 상담료와 수임료가 다른 점에도 의문이 생겨 힘들었는데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광주상담소가 개설되었다니, 공제회에 감사드립니다. 공제회가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The-K 매거진」 발간으로 매달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정보지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양*순 회원** 前 광주효광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4월호에서 특별 소장본으로 '배리어 프리 하트 일러스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 소개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다양한 개성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 많이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이벤트를 마련해 주시고, 멋진 작품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맹*헌 회원** 용인강남학교

이번 호에는 유난히 흥미로운 기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속 숨은 영웅' 이미륵 선생님의 '휴머니스트의 삶을 이어간 작가'란 타이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책 「압록강은 흐른다」를 몇 번이나 읽은 기억도 떠오르고, 그분의 짧고 아름다운 생애도 생각났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기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챗GPT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AI는 우리 삶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데, 기탄잘리 라오가 9세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챗GPT를 내 생활에 어떻게 접목할까, 하는 개인적 물음이 문제의식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해줘 좋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가장 우수한 장점인 타인과의 소통이나 교감, 눈빛과 눈빛을 교환함으로서 도달하게 되는 메타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좀 더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챗GPT 관련 기사는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김*옥 회원** 前 샛별중학교

35년 동안 매월 최대로 적립해 온 장기저축급여금에서 이제는 분할급여금으로 관심을 갖고 퇴직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해 봅니다. 대한민국 교직원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 「The-K 매거진」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런 확인이 35년을 지탱해 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배움을 더하고, 행복을 곱하고, 언제나 더케이 참 멋있고 자랑스러운 목차입니다. 「The-K 매거진」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이정표가 되어 영원히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이*호 회원** 형석고등학교

봄과 함께 찾아온 「The-K 매거진」 4월호는 화사함도 같이 와서 들여다보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옥천의 숨은 명소를 보며 한반도 지형의 둔주봉은 그야말로 실개천으로 감성 돋아주고 정지용의 시처럼 눈부신 사월이 보였어요. 토속 생선국수는 꼭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The-K 예방의학'에서는 실제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규칙적인 식사와 천천히 먹기, 튀기기보다는 찌기, 금주 등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실천 의지가 생겼습니다. 건강한 집밥에서도 비건 도시락의 예로 미역무침 차수수 비빔밥은 저녁 메뉴로 당분간 먹어보려 합니다. 공제회의 준비금 적립률과 재무건전성 확보, 단기 순이익으로 9년 연속 흑자 소식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항상 짜임새 있고 소중한 정보와 공제회 회원을 생각하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이*숙 회원** 남원용성초등학교

매월 잡지를 샅샅이 훑어보기를 반복하고 블로그, 유튜브, 이메일 등에서도 살펴보는데 '배리어 프리 하트 일러스트 컬러링' 이벤트도 있었군요. 회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미적 감각에 놀랄 뿐입니다. 우리 더케이 가족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잡지의 끊임없는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4월호 건축학자이신 배형민 교수님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중점을 두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국가 발전을 위해 고생한 기성세대가 이제는 살기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천과 교육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숙 회원** 前 서울당서초등학교

중년의 나이가 되니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걱정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인생 이모작' 코너를 읽으며 나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무엇을 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평등한 것이 나이 듦이라고 하던데, 좀 더 멋지게 나를 위한 나이 듦을 준비하는 데 '인생 이모작'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제회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을 고민과 좌절, 후회로 남겨두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며 주변도 돌아보고 하고 싶은 일도 도전해 보며 맘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이 듦이 더 멋지고 빛나지 않겠습니까?

**조*대 회원** 인천송월초등학교

The-K 매거진」 4월호를 읽고 '언제나 더케이'에서 'The-K Focus'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2022년 결산 편에서 2022년 공제회 주요 소식, 2022년 회원 수, 제도별 가입 회원 수, 지역별 교직원 수 대비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 2022년 주요 회원 복지 현황 등을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신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프로 설명한 점과 2022년 투자 수익, 2023년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계획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한눈에 살펴보는 2022년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눈에 알기 쉽게 도표화한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공제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현 회원** 서울대현초등학교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개된 29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매월 50분을 선정해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 온라인 웹진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 토끼 캐릭터 찾아 힌트를 얻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토끼 캐릭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토끼가 주는 힌트를 따라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6. 1. ~ 6. 30.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토끼를 찾아 클릭 ▶ 토끼가 출제하는 퀴즈 풀기 ▶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8. 1. 이후

## The-K ⊙✕ 퀴즈

이번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으셨나요?
아래의 OX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5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5천 원)을 드립니다.

▲ OX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3. 6. 1. ~ 6. 30.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8. 1. 이후

**5월호 퀴즈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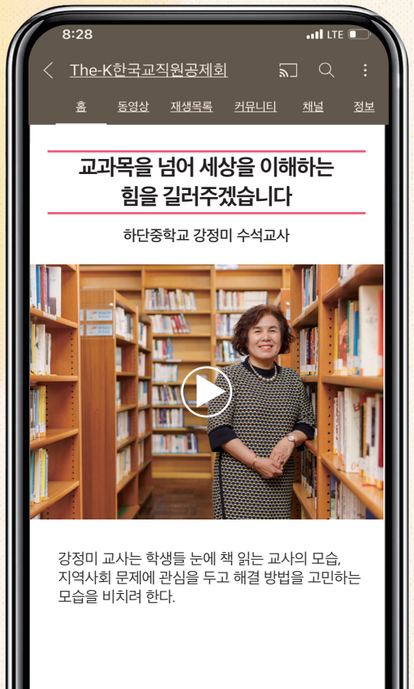
QUIZ 1. X
QUIZ 2. O
QUIZ 3. O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 학생 신분으로 지원해 전후방에서 군경의 업무를 도운 개별 학생 혹은 단체를 학도의용군이라고 한다. (p.8~11 「역사 속 숨은 영웅」 참조) ⊙✕

**2**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한 강정미 교사가 운영한 독서교육모임의 이름은 '부산행복독서교육지원단'이다. (p.16~19 「스승상 수상자 인터뷰」 참조) ⊙✕

**3** 다양한 지역·연령·소속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19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공제회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미있고 생생한 교육·업무 현장, 다양한 공제회 서비스·혜택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이들의 명칭은 'SNS 기자단'이다. (p.68~71 「The-K 크리에이터」 참조) ⊙✕




## 지금은 댓글 남길 시간!

# 영상 리뷰 댓글왕 이벤트

emart 5천원권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이마트 모바일 금액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6. 1. ~ 6. 15.
- **응모 방법** : ❶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❷ 「The-K 매거진」 6월호 '대한민국 스승상 인터뷰'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❸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8. 1. 이후

「대한민국 스승상 인터뷰」

「DIY 리사이클링」

* 댓글왕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he-K 매거진」 6월 즉석 당첨 이벤트

**응모 기간 : 2023. 6. 1. ~ 6. 30.**

1,000개 —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모바일 상품권 — 1,000개

| | |
|---|---|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 응모 방법 |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
| 당첨 발표 |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
| 경품 발송 | 2023. 8.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
| 유의 사항 |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br>•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br>•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br>•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br>•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 월~금 09:00~18:00) |